

초대의 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혼례문화 본래의 의미와 가치 회복을 통한 ‘시대공감형 혼례문화 만들기’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호화혼수, 과시적 결혼식 등으로 사회적 위화감 조성 및 일반 서민들의 따라하기 관행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은 물론 더 나아가 젊은이들의 결혼 기피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 우리사회 혼례의 현황과 문제점 및 시대변화에 맞는 혼례문화 방향에 대하여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토론의 장에 널리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 10월 2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최 금 숙**

프로그램

사 회: 양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삶의질전략단장)

14:00~14:10	인사말씀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격려사	김태석 (여성가족부 차관)
14:10~15:30	발제 1	우리 혼례문화의 의미와 새로운 정착 조희선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발제 2	한국 혼례산업의 현황과 과제 김인옥 (성신여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
	발제 3	새로운 혼례문화 사례발표 사회지도층 사례 신산철 (생활개혁실천협의회 사무총장)
		일반시민 사례
15:30~16:00	토론 및 질의응답	
	토론	이혜자 (전 여성유도회장) 이광렬 (그린웨딩 포럼 대표) 윤효식 (여성가족부 과장) 이탁인 (무료결혼식 추진운동본부장) 김양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6:00	폐회	

* 실제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목 차

주제발표

- 우리 혼례문화의 의미와 새로운 정착 1
조희선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교수)
- 한국 혼례산업의 현황과 과제 17
김인옥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
- 사회지도층의 아름다운 혼인실천사례 31
신산철 (생활개혁신천협의회 사무총장)

토 론 문

- 전통 혼례속의 건전한 혼례문화 45
이혜자 (성균관여성유도회 중앙회 전회장)
- 한국사회 과비용 예식구조에 대한 변화 53
이광렬 (그린웨딩 포럼 대표)
- 생활공감 혼례문화 확산 정책방향 57
윤효식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
- 무료결혼식추진운동본부 소개 65
이탁인 (무료결혼식 추진운동 본부장)
- ‘혼례/혼수’에 대한 생활체감정책단 온라인 패널 조사 결과 보고 67
김양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제 1

시대공감형 혼례문화 만들기

우리 혼례문화의 의미와 새로운 정착

조 희 선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교수)

I. 머릿말

혼례의 의미는 시대적 역사적인 변천을 거쳐 왔다. 우리나라의 전통혼례는 혼인당사자 개인 중심이 아닌 가문간의 결합으로 결혼 지위의 획득과 자녀출산 등을 목적으로 하며, 내용적 의미가 우선시되고 도덕률과 사회규범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근대화와 더불어 우리는 서구화에 앞장서 전통적 문화형식이나 생활양식을 전근대적이고 낙후한 것으로 규정하고, 마침내 우리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단절하고 말았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전통문화의 재인식과 계승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현대적 이해를 도모하는데 이르렀다.

오늘날 혼례문화는 전반적으로 허례 허식적이며,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관행이 되어 개인과 사회에 필요이상의 부담을 가중시켜 왔으며, 이는 나라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요소로 지적되어왔다. 따라서 바람직한 혼례문화의 정립이 절실하지만, 아직 혼례에 대한 표준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오늘날 우리의 혼례를 구성하는 절차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상품화되어 혼인 산업에서 조장된 상품을 구매해야만 하는 잘못된 풍토가 조성되어 있다. 그로 인해 평등하고 인격적이어야 할 부부의 결합이 물질적 교류의 통로가 되고, 그 결과 가족 내와 가족 간의 갈등을 불러 일으켜 급기야는 혼인이 와해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혼례가 점차 상품화되고 과다혼수가 문제시되는 것은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인 총체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근자의 혼례는 본래의 의미와 미덕은 찾아볼 수 없고, 존엄하고 신성해야 할 혼례식이 자본주의에 편승하여 물질만능주의와 상업주의로 얼룩지고 있으며, 일생에 한번이라는 미명 아래 진정한 혼례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혼수에 대하여 전통교혼서에서는 ‘혼인에 재물을 논하는 것은 마침내는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망치는 것이다’라고 하여 혼인에 재물이나 혼수를 논하는 것은 바른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도 높은 신분의 반가(班家)에서는 돈이나 패물을 많이 보내는 것은 격이 낮다고 보았으며, 신부 측에서 폐백드릴 때 예단도 지나치지 않게 준비할 것을 이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혼수문제는 혼인생활 갈등의 요인이 되어,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가치관이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혼례문화는 서양식인가?, 전통식인가?, 또는 혼인당사자 개인 중심인가?, 집안 중심인가?에 의문점을 가지며, 본고에서는 전통혼례 절차를 기반으로 현대사회에 맞는 새로운 혼례의 정착을 위하여 혼례문화에 대한 현대인의 문제의식을 살펴보고, 오늘날 잃어버린 우리의 혼례관을 전통혼례의 절차에서 탐색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혼례문화의 현상과 의식

혼인은 평등성을 기반으로 한 부부 동격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 사회에서는 상당수의 혼인이 가족 간의 합의에 따라 혼수를 매개로 이루어지므로, 과다 혼수로 인한 어려움은 오늘날 혼인을 경험하는 가정에서 겪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나아가 혼수시비는 혼인을 파탄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가정문제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즉 오늘날 혼인과 관련하여 무절제한 소비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혼수는 그 본래의 의미를 잃고서 물질만능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적 상업화로 성격이 변질되었으며, 이것이 계층에 관계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어 혼인을 준비하는데 물질적인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매혼의 경우, 혼수를 장만하는 정도가 당사자나 가족을 평가하는 척도로 작용하여 혼인성립의 주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즉 이러한 현상은 왜곡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단면으로써 신성해야 할 혼인이 상품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개개인으로써 하여금 혼인시장에서 물질적 재화의 교환능력에 따라 가치를 평가받게 하며, 한낱 물질에 불과한 혼수가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등의 물질주의 가치관으로 인해 계층에 관계없이 혼례 준비에 주어진 자원이상의 과소비가 작용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본인 및 부모의 자살, 파혼, 이혼 등으로 파생되어 결과적으로 개인과 가정 뿐 아니라, 우리사회에 고질적인 당면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혼인에는 사회적 관습이나 의식에 의한 경제적 요소가 따르므로, 혼수는 전 세계적으로도 혼인의 필수요소로써 작용한다. 그러나 혼수는 다만 혼인생활의 필수품에 대한 준비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양적, 질적으로 물질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데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이때 상대방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이는 곧 가족내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가정파탄의 사유가 될 정도로 신성해야 할 혼인의 본의를 오도하게 된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사회의 혼인문제는 혼인 성립의 핵심적 요소가 두 사람의 사랑과 합의의 결실보다 물질적 재화의 교환 즉 혼수의 교환에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혼수비용을 점차 증가시키며, 또한 우리사회가 갖는 고유의 현실적 문제로서 교육기간의 장기화, 군복무 등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늦추므로 혼수비용의 대부분을 부모에게 의존하게 한다. 따라서 부모의 혼수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은 자녀교육비에 이어 더욱 가중되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부모가 자녀 혼인에 전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중년기 부모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안정된 가계경제의 유지가 필요할 것이다. 즉 자신의 건강한 노후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녀 혼수비용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절감하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와 같이 혼례에서 과다혼수의 문제는 시대를 초월하여 이어지고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그 시대 나름대로 국가차원의 주요 이슈였고, 오늘날까지 혼수문제는 사회의 각종 이기적 폐해의 일부로 연결되어 개인과 가족과 사회의 몸살거리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는 근대화와 더불어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부(副)의 편중이 심화되었으며, 또한 도시화와 80년대 이후 국민소득의 증가는 삶의 질 향상, 소비문화의 증대 등을 요구하게 된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더불어 혼수관련 산업이 양산됨에 따라, 혼례문화는 상업화에 이끌려 가부장성에 따른 문제 외에도 혼례과소비문제로 여전히 사회의 주요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1986년 한국여성개발원(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관심-각계각층의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건전한 혼례혼수’에 관한 의견조사를 함-을 시작으로, 최근 2011년 여성가족부의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문화조성 사업에 이르기까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혼례모형 개발, 건전 혼례문화 캠페인, 건전혼례교육 등 다양한 내용과 방법으로 건전한 혼례문화 조성을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청년여성문화원, 한국전례원,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가족문화원, 청년여성문화원, 한국전례원, 예지원 등의 많은 기관에서 수행하여 왔다.

1980년대 이후 30여 년 간 혼례에 대한 의식과 실태 조사를 종합해보면, 일반 국민 응답자들은 현행 결혼문화에 대해 대부분이 ‘호화롭고 사치스럽다’ ‘경제적이고 간소한 혼례를 희망한다’고 답하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두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왜 혼례사치 문화는 이어지고 있을까? 이러한 잘못된 혼례문화의 핵심원인에 대하여 ‘남처럼 치러야 한다’는 체면문화와 과시적, 물질만능적 사회 풍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혼례의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는 다같이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준비하는 혼례에 있어 자신의 생각과 관계없이 ‘일반적’이라는 이름으로 남들과 똑같이 시류를 따르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여전히 남의 탓으로 지적하고 있다.

최근의 혼례문화와 관련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혼례문화는 전통문화로 지켜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는 한편, 혼례문화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혼례에 대한 개선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으로는 ‘과시적인 부분’을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하는 과도한 혼수를 지적하고 있으며, 그 밖에 ‘뜰에 박힌 결혼식’,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건전한 혼례문화 정착을 위한 지침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실용적인 지침서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응답자들은 60%이상이 형편에 맞는 혼수준비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하며, 선호하는 혼례 형태로는 가족, 친지 중심의 간소한 결혼식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예단을 포함한 혼수를 중심으로, 주거마련, 피로연, 혼례장소, 야외촬영, 신혼여행 등 예식비용과 같은 금전적 문제와 관련되는 것에만 논의의 초점을 두었으나, 혼례문화에 관하여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원인에 대하여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전통혼례의 배경

혼인은 곧 인륜의 시작이다.

예기에 이르기를, 예의 형식은 행하기 쉬우나, 그 의의는 알기 어려운 것이므로 예의 본 뜻을 알고 예를 지키는 것이 곧 도(道)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또한 친영(親迎)은 의례의 각 절차를 삼가 조심하여 정성으로 준비하고, 자손들이 혼례를 행함에 있어 조상에 감사하며, 남편은 강(強)하되 공경으로 아내를 인솔하며, 아내는 유(柔)하되 역시 공경으로 남편의 뜻에 화합하여 가계를 계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신부는 남편의 부모님을 정성과 애경으로 봉사하고, 신랑은 아내의 부모님을 친애로써 공경하도록 이르고 있다.

율곡에 의하면, 부부는 서로 공경하고 예의를 잃지 않으며, 서로 믿고 순종하면서 家道가 바로 선다고 하였다. 즉 혼례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부부의 윤리가 바로 잡히지 않으며, 부자의 윤리, 가족의 윤리, 사회의 윤리 모두가 붕괴된다는 인식이다. 이렇게 혼례에는 誠과 敬과 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역으로 살펴보면 오늘날 부부간, 부자간, 그리고 가족과 사회의 윤리가 흔들린다면 혼례문화에 문제가 있음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1. 전통혼례의 유래

오늘날 전통혼례라고 하는 것은 주자(朱子)의 가례(家禮)가 전래된 이후 500년간 시행된 혼례문화를 말한다. 주자가례는 우리 혼례의 표본이 되었으며,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혼례라 하면 주자의 가례에 의거한 유교식 혼례와 관습으로 내려온 고유풍습의 혼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육례(六禮)는 지금부터 약 3천년 전 중국 周 나라 때의 혼인절차였으나, 주자(朱子)가 복잡한 육례의 중복을 줄이고, 당시의 사회실정에 맞도록 四禮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주자의 가례(家禮)는 우리나라에서 왕가나 사대부계층에서만 이루어지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서류부가혼(婿留婦家婚)인 전통관습의 혼례가 이루어졌다.

태조의 즉위 교서에 “국가통치를 위하여 관혼상제를 통해 풍속을 바로 잡으려 한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은 유교국가로서 국가의 모든 제도와 일상의 관행을 의례에서 찾고자 했다. 성리학을 이념적 기반으로 한 조선조 사대부들의 정치적 이상은 예교(禮敎)의 사회화인 덕치주의에 있다. 명분을 밝히고 절제를 근본으로 하는 예(禮)는 바로 사회질서이며, 정치는 바로 예를 실현하는 방법론이기도 했다. 이때 ‘관혼상제’ 의례는 기존사회의 가치를 확인·강화함으로써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사회통제의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국가는 예(禮)를 통하여 가부장제 사회로의 기강을 세우고자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혼인을 인륜의 가장 큰

대사로 보았기 때문에 혼례(婚禮)를 행하지 않으면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대부들은 ‘주문공가례’에 따라 혼례 절차를 수용하여 실행하고자 했는데, 이 가운데 혼례의식인 친영(親迎)은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끝내 뜻한바 대로 순조롭게 성사되지 못하였다.

조선 초기의 혼인관행은 고려시대의 남귀여가(男歸女家)혼속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거처관계상 자연히 어머니와 외가를 중시하게 되므로, 가부장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적합하지 않으므로 혼인풍속을 친영례로 장려·강조하여 교정하고자 국가는 끊임없이 해결 과제로 논의하였다. 즉 세종의 강한 개혁의지에도 불구하고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성종대에 이르기 까지 서류부가혼속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렇게 국가가 성리학적인 혼인풍속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쓴 결과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과 친영제(親迎制)가 절충하여 반친영의 형태로 18세기부터 일반화되었다.

2. 전통혼례의 절차

혼례절차는 민족의 특수성, 지역문화에 따라 다르며, 시대변천에 따라서 다르게 변화한다. 본디 전통혼례 절차라 함은 중국 고대 주(周)나라 시대의 종법제도 아래 정립된 주육례(周六禮)로 납채(納采:남자 측에서 여자 측에게 혼인할 의향이 있음을 전달함), 문명(問名:신부될 여자의 어머니의 성씨를 알아봄), 납길(納吉:남자 측에서 여자 측에 혼인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함), 납폐(納幣:남자 측이 혼인의 뜻을 밝히는 징표로써 예물을 전함), 청기(請期:남자 측에서 여자 측에게 혼인 날짜를 정할 것을 요청하는 절차), 친영(親迎: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다가 남자 집에서 예식을 올림)이다.

오늘날 우리가 전통혼례라 하는 것은 가정의례의 교본으로 주자가례에 근거하는 것으로 혼례에서는 사례(四禮)의 절차를 갖는다. 즉 서로 결혼의사를 타진하는 의혼(議婚), 혼인 날짜를 정하는 납채(納采), 신부집으로 예물을 보내는 납폐(納幣), 혼례식을 올리는 친영(親迎)이라는 네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친영(親迎)은 우선 전안례(奠雁禮)로 부터 시작한다. 고례에는 살아있는 기러기로 하였으나, 지금은 나무기러기를 쓴다. 전안례에 이어 교배례(交拜禮)와 합근례(合卺禮)가 있는데 이 예식은 신랑 신부가 처음 대면하여 백년해로를 서약하는 의식이다.

Ⅳ. 전통혼례의 절차를 통해 본 혼인의 의미

인류사회에서 종족보존을 위한 남녀의 결합은 지금까지 존재해왔으며, 모든 사회가 저마다의 다양한 형태로 법제적 승인과 규제로서 혼인을 인정해왔다. 따라서 혼인이란 특정한

성인남녀가 사회적으로 정한 의식에 따라 부부가 되는 것으로, 이를 禮로써 행하는 혼례는 도덕과 관습의 총체이자, 사회적 법률적 제한을 받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관혼상제(冠婚喪祭) 의례 가운데 혼례는 새로운 가정을 탄생시킴으로써 한 집안이 연속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즉 혼례를 치룸으로써 혼인당사자는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어른으로 인정받으며, 가족에게는 가족구성원을 새로이 맞이하는 동시에 가족의 증식과 번영을 예측하는 의례이므로 혼인을 일러 ‘인륜 도덕의 시원(始原)이자 만복(萬福)의 근원’이라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혼인제도 역시 중요성과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통혼례의 절차에 나타난 혼인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혼(議婚)**이란 중매혼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므로 혼인생활의 영속성을 갖는다. 혼기를 맞이한 신랑 신부감을 둔 집안에서는 먼저 중매인을 보내 상대에 관한 여러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렇게 해서 혼담이 오가는 것을 ‘의혼(議婚)’이라 하는데 이는 중매혼을 의미한다. 결혼당사자의 의사보다는 주로 부모의 의사가 중요하였고, 반드시 중매인이 있는 것이 예(禮)였다. 만약 당사자 간의 만남일 경우엔 ‘이이(이혼)’라 하여 나라에서는 결국 당사자들을 갈라놓았다. 즉 전통사회의 혼인은 개인 간의 결합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는 점에 무게가 실렸을 것이므로 영속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결정에 따른 이혼이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납채(納采)**로 혼인의사를 확인한 후 청혼의 뜻을 담은 납채서(納采書)와 신랑의 사주(四柱)를 보낸다. 전통사회에선 납채의 절차를 가지면 혼인이 정해진 것으로 간주하므로 여성에게 정절을 요구하기도 했다.

셋째, **납폐(納幣)**로 신부 집의 혼인허락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신부용 예물과 혼서(婚書)를 넣어 보낸다. 혼서는 신부에게는 일부종사(一夫從死)의 의미로 일생동안 간직하였다가, 죽을 때 관 속에 넣어 가지고 간다고 하므로 부부는 백년해로(百年偕老)할 것을 의미한다. 이때 함 속에는 이성지합(異姓之合)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최소 청홍옷감 상하의 한 벌인 두 끝 이상이되, 10끝 이하로 정하여 함 사치를 예방하였다.

넷째, **친영(親迎)**이란 혼례식으로 대례(大禮)라고도 하며, 전안례(소례)와 교배례, 합근례를 포함한다. 전통혼례의 목적은 두 성(性)이 합하여 위로는 조상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후사(後嗣)를 잇는 것이다. 즉 가계를 잇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그것은 선대(先代)의 생명을 단절 없이 계속 이어간다는 뜻을 가지므로 결혼을 하지 않아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은 불효 가운데서도 큰 불효에 속했다. 아들을 통해 조상님께 제례를 끊이지 않고 지내는 것이 조상님에 대한 의무이므로 많은 아들을 낳는 것이 혼인의 중요한 목표였다.

또한 전통혼례에는 일생 동안 생사고락(生死苦樂)을 같이 하는 백년가약(百年佳約)의 관계를 의미하는 전안례가 있다. 혼례식에 앞서 행하는 **전안례(奠雁禮)**는 신랑이 기러기를 안

고 신부의 어머니에게 기러기를 전하는 禮이다. 원래는 산 기러기를 사용하였지만 나중에는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 뜻은 기러기는 한 번 암수가 연(緣)을 맺으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짝의 연분을 지킨다는 의미로 신랑이 백년해로 서약의 징표로서 신부의 어머니에게 기러기를 드린다. 즉 신랑이 신부에게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맹세하는 백년가약의 상징이다. 그 시대에는 여성의 정절은 기러기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제도적으로 수절이 강요되었으므로, 여기에서 정절의 의미를 담은 상징적 징표의 표현은 남자에게 해당된다.

다음으로 신랑과 신부가 맞절을 하는 교배례(交拜禮) 의식이 있다. 이때 신부가 먼저 네 번 절을 하고 나서, 신랑이 답례로 두 번 절하는 형식을 취하는 점에서 음양원리와 가부장 사회이므로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동시에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부부관계가 평등한 것이 아니라 부창부수(夫唱婦隨)의 체계로 남성의 권위를 강조하는데 특징이 있다.

대례(大禮)의 마지막 순서인 합근례(合簪禮)는 두 개로 나뉘어진 표주박에 청실홍실을 달아 부부의 백년가약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세 잔의 술을 통해 그들이 바라는 것은 장수와 부귀, 다남(多男)이었다. 그러므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 칠거지악에 해당되며, 부부가 백년가약(百年佳約)을 맺었음에도 첩을 둘 수 있었던 근거도 아들을 보기 위한 명분이었다. 따라서 전통혼인에서 자녀 출산이야말로 부부에게 부과된 가장 핵심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후례로 우귀례(현구고례)가 있는데,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본가로 들어가는 것을 우귀(于歸)라 하며, 이때 신부는 시부모님께 밤, 대추, 육포 등 준비한 예물을 올리고 처음인사를 드리는 예이다. 즉 혼례식을 마친 신부가 시부모와 시댁 친척들에게 처음으로 정식으로 첫인사를 올리는 의식이다. 고례에 의하면 신부는 우귀(于歸)하여 첫날밤을 자고 이튿날 아침 시부모님께 처음으로 큰절을 올렸다. 신랑의 직계존속에게는 폐백을 올리면서 사배(四拜)를 행하고, 나머지 친척들에게는 한번 절한다. 이를 현구고례(見舅姑禮)라 하며 신부는 예를 올리기 위해 시부모에게 드릴 음식을 준비하여 가는데 이를 폐백(幣帛)이라 한다. 이로써 신부는 명실상부하게 시댁 가족의 구성원이 된 것이다.

폐백에서 중요한 음식은 대추와 포이다. 시아버지는 대추를 주며 아들 낳기를 바라며, 시어머니가 포를 어루만지는 것은 신부의 허물을 덮는다는 뜻이다. 이때 포는 신부가 직접 정성스럽게 만들어 시부모님께 올렸다고 한다. 폐백상차림은 지역과 가풍에 따라 준비하는 음식이 다를 수 있다.

혼례식에서 신랑의 위치는 초례상을 중심으로 동쪽이고, 신부의 위치는 서쪽이 되도록 했던 것, 신랑은 양으로 두 번 절하고, 신부는 음으로 네 번 절하는 것은 음양(陰陽)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의미를 담고 있다.

V. 혼수문화의 양면성

1. 혼례 사치와 규제

혼례사치에 대한 논의는 조선의 건국 초부터 시작되었으며, 태종조에는 大小혼례에서 우리나라에 산출이 많지 않은 축미를 사용하는 사치를 큰 폐단으로 여겨 금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세종조에는 특히 임금과 중궁이 검약을 숭상하므로 왕실을 중심으로 실천적 모범을 보였다. 예로써 왕세자의 가례(嘉禮)에서 초례(醺禮)와 현구고례(見舅姑禮)의 상차림에서 검약을 실천하며, 炬火(축밀)의 수(數)도 제한하였다.

세종은 혼례예단과 관련하여 간소하게 하도록 계(戒)하였는데, 신부 집에서의 이불, 요 준비에 다른 지방에서 생산되는 구하기 어려운 능금단자를 금하며, 복식으로는 사라능단을 금하며, 집의 재산여부에 따라 본토에서 생산되는 명주, 면모, 모시를 쓰게 했다.

세종은 숙신옹주의 가례에서, 10년 후 왕자의 가례에서도 신부 집에서 사치스러운婚禮品(진귀한 주옥, 비단의 복, 안마, 갓 등)을 보내는 풍속을 없애도록 하는 등 검약을 실천하는 데에 앞장섰다.

한편 세종조에 혼수와 관련한 사건에서 이불·요와 의복이 화려하지 못한데 대해 혼수가 적다고 失行으로 칭탁한 것을 밝히어 장(丈)60에 1년으로 치죄함으로써 혼례에 관심과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혼수를 실행으로까지 위장한 점에서 그 당시에도 혼수문제는 그 비중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내훈>의 <부의>편 기록에 의하면, 혼수사치는 신부 집의 문제로써 이는 강한 가부장제의 반영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장(家長)을 올려서 제멋대로 혼수를 갖추어’라는 대목을 통해 가부장제 이면에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내면적 권력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시대에도 혼수는 가정에서 어머니(여성) 주관의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성종조에는 혼례와 관련한 사치가 이어지므로 예조에서 사치금지 조목을 마련하였는데 <續六典>에 의하면 사라·능단(紗羅·綾緞)을 쓰지 않도록 했다.

또한 李瀾의 「星湖僿說」, <人事門>에서 婚姻과 관련하여 혼수사치의 폐해를 지적하였다. 딸을 시집보낼 때 반드시 찬반(饌飯)을 극히 풍성하고 사치스럽게 차려 보내 시집사람들을 먹이고, 일가친척과 손님들에게 자랑을 하여 빚을 내며, 이것을 마련하지 못하면 수치로 생각하는 일은 경박하고 사치스러운 풍습이니 신랑 집에서는 마땅히 이를 엄히 금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치풍조를 금하기 위하여 경국대전에서 법으로 금지하여 규정하였다. 혼인날 밤의 횃불을 2품 이상은 10자루, 3품이하는 6자루로 제한하였고, 신부가 시부모를 뵈 볼 때 술은 1분, 안주는 다섯그릇, 따라가는 종은 3인, 남자종은 14인으로 규정하였다. 형전의 금제조

(禁制條)에서는 당하관이하로서 혼인 때에 사라능단을 사용한 자는 장형(杖刑) 80대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혼수에 있어서는 조선전기부터 혼수규제와 더불어 왕실에서 절약에 대한 숭선수범으로 풍속의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과다혼수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금을 막론하고 혼례 사치는 또 다른 형태의 부(副)의 과시로 6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조의 규범서에서는 그 당시 보다 앞선 전통혼례에서는 혼인 때 재물을 논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혼례의 문제는 납폐와 후례인 폐백인데 양가 모두 과다하게 할 경우 오히려 수치스럽게 생각했으며, 혼수로 인한 기처(棄妻) 또는 혼인파탄은 매우 예외적인 드문 예로 혼수의 과다함을 경계하고 있었다.

한편 조선조에서는 가부장사회임을 입증하는 예로 특히 여성에 대한 구휼정책으로 혼인 시기가 되면 혼수를 지원하였다. 먼저 부모가 없거나 가난하여 여자가 30세가 되도록 혼인 시기를 놓친 경우 친족이나 국가에서 資粧을 갖추어 혼인하도록 하였다. 이때 혼수는 집안의 높고 낮음과 빈궁한 정도의 경중에 따라 달리 지원한 점에서 신분제가 개입되고 있음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내외사촌 이상의 친족이 혼수에 관여하지 않은 자와 지나치게 사치하는 자를 밝히도록 하여 규제하였다. 즉 전통사회에서 혼인은 내외사촌이상 친족의 범위까지 한 집안 내로 하여 혼인에 책임을 갖게 하며, 또한 혼수가 과다한 것을 규제한 점에서 볼 때 여성의 혼인은 개인과 가족 내 문제로 그치지 않았고, 국가의 차원에 까지 개입하고 지지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로써 혼인은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임이 틀림없음을 깨닫게 한다.

2. 분수 지키기와 상생(相生)

조선조에서는 다스림의 근본은 內治에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의 소비에도 분수를 넘으면禍를 자초하는 것이므로 분수에 따라 義로 절제하는 것이 자녀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 것이라고 하며 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시대는 신분사회이므로 특히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지 않도록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전통사회의 관습을 설명할 때 체면의식과 허례허식 등 부정적 잠재기능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가정의례의 본래 풍습은 각 절차와 행위에 의미가 부여되었으며, 신분사회인 만큼 분수에 맞는 범위에서 의례에 융해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안동 양반의 생활세계를 보면, 의례 때 자신의 형편만 생각하지 않고, 대소가(大小家)의 형편을 두루 살핀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은 ‘분수 지키기와 상생’

을 기본원리로 하여 인간의 욕망을 자제하는 지표로써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Ⅵ. 맺음말

전통사회에서나 근대화 이후 오늘날까지 혼례문제에 대하여는 가부장제로 빚어지는 ‘남녀불평등과 과다혼수’라는 맥락에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에서나 동일한 고민을 꾸준히 해왔다. 이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가부장사회를 벗어나면서 남녀불평등의 문제는 많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호화혼수의 과소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의 혼례문화는 개인 당사자와 집안을 모두 고려하고 개입하며, 전통혼례문화와 서양식 혼례문화, 여기에 야외사진촬영, 해외신혼여행 등 그 어느 나라 문화도 아닌 것이 모두 혼합된 국적 불명의 과소비관행의 혼례에 동참하고 있다. 이제 미래의 역사와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전통문화를 탐색하고, 현시대에 맞는 새로운 창조를 위한 방법의 추구하고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금까지 바람직한 혼례문화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행 혼례문화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한편 전통사회의 혼례절차에서 그 의미를 찾으며, 과다혼수에 대해 국가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기초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해 본다.

첫째, 먼저 국민 의식의 전환과 실천이 절실하다. 과소비관행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은 ‘진정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는 반응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혼인의 변화와 실천을 위하여 용기를 갖고서 혼인의 주인공이 되어 주체의식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자녀혼례를 통해 체면을 앞세워 재력을 과시하며, 혼례절차의 의미도 모르는 채 물질 중심으로의 과도한 혼수마련은 결코 자녀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전통 규범서에서는 이는 ‘자녀를 속이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혼례는 물건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서의 성숙한 마음가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필요하므로 부모는 독립된 새로운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혼인을 주도하는 혼인당사자와 혼주인 어머니가, 그리고 사회지도층이 혼례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계획과 적극적인 실천으로 준비한다면 뿌리 깊은 혼례문제에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혼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주인 부모는 과소비와 허례허식의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주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예로 자녀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할 일을 남겨줌으로써

성취감을 갖게 하며, 자신의 노년기의 가계재정을 고려하는 지혜를 갖고서 합리적인 자녀 혼례준비를 함으로써 앞으로의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혼인에 임하는 당사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부모가 이후 맞이할 노년기를 생각한다면, 자립심을 갖고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여 분수에 맞는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한 혼수마련을 하며, 상대방과 주변사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자신의 능력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겸손하게 마련하며, 상대방의 정성에 많고 적음을 논하지 말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미덕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전통혼례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새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여기에 합리성을 더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실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현실에 맞는 명확한 의례의 준칙과 구체적인 실천지침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녀혼수 준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부모들은 혼인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의 실천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기관에서 혼례를 준비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혼례문화교육이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진행된다면 혼수상업화에의 의존이 최소화될 것이며, 또한 부모의 정성으로 자녀혼인을 차분히 준비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며, 여기에 혼수산업종사자들의 우리 혼례의 문화적 이해를 위한 교육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혼인당사자를 대상으로 하여서는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장단기 생활설계를 돕도록 혼인준비교육을 의무화하는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오늘날 새로운 가정에 필요한 혼수품은 모두가 규격화, 전문화됨에 따라 지나치게 상품화에 의존하는 경향이다. 즉 모든 혼례준비를 구매로 해결하려고 하는 점도 과소비의 한 원인이라고 본다. 전통사회나 오늘날에나 무엇보다 자녀가 꾸릴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는 혼례의 중심에는 어머니가 있다. 1차적 역할을 하는 어머니의 자녀혼례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의식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에 부모와 자녀가 계획하고 합의하며, 함께 노력하여 가정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스스로 준비하고자 하는 여성(규방)문화, 가정문화 부활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것이 바로 가정문화의 창조이자 나아가 문화전승으로 이어져 우리의 혼례문화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는 가정문화의 모델이자 문화전승의 지도자이길 바란다. 이를 위해선 지역사회 등 사회교육기관을 통하여 혼인할 자녀를 둔 어머니를 위한 혼례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어머니의 정성으로 나의 소중한 자녀의 행복을 기원하며 함싸기도 하고, 폐백음식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혼례문화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오늘날에도 과다혼수문제와 이로 인한 남녀불평등의 문제는 신부측의 호소로 지적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혼례관행상 주택문제를 신랑측에서 담당하고, 그에 상응

하는 예단을 포함한 혼수를 신부측에서 맡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혼례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주택마련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보급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주택문제가 해결된다면, 주택마련에 상응하는 혼수채우기식의 거래형과 다혼수관행도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써 비혼의 주범인 혼례비용(주거와 혼수)의 부담을 줄인다면 혼인율이 높아질 것이며, 나아가 저출산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이다. 왜냐하면 저출산의 전제조건은 혼인이므로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혼인율을 높이는 최우선 작업일 것이다.

일곱째, 혼례문화의 세부적인 각각의 방안모색에 앞서 근본적인 혼례 가치와 절차를 재해석하고, 시대현실에 맞게 변화하고 동시에 효과적인 실천을 위하여 관련전문가들의 진지한 공동연구와 토론의 장(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공동연구라 함은 의식조사수준의 양적 접근만이 아니라, 혼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문제점에 대하여 인터뷰를 통한 질적 접근이 동반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조선시대의 예학연구에 따르면, 예법에 문제가 없거나 실용적이라면 속례(俗禮)를 인정하였다. 이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으로 예를 기반으로 하되, 시의에 적절하도록 실생활에 맞으며 분수를 넘치지 않는 혼례를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전통혼례 절차에 현실적 속례를 수용하여 절충하되 여기에 정성과 공경, 사랑과 상생, 인정을 담아 우리 고유의 의례문화로 창조한 선조들의 지혜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전통혼인이 가문의 대(代)를 잇기 위한 가계계승을 목적으로 아들 출산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오늘날에는 자녀출산으로 더욱 튼튼한 백년해로의 행복한 가정을 창조하며, 또한 국가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도 혼인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여 볼 때, 지금까지의 혼례문화개선방안은 가부장사회로 빚어지는 남녀불평등과 과시욕과 체면문화, 허례허식의 절차, 부모주도의 혼인 비용으로 인한 호화사치혼수문화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혼주나 혼인당사자가 혼례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이를 지키기 위한 인내와 노력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깨달아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사람을 포함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물질로 평가하고 해결하려는 의식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실천에 앞장선다면, 남녀불평등 혼례문화, 혼수시장에서의 사람 불평등문제 등 물질만능의 사고로 빚어진 비합리적인 혼례문화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그에 앞서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편의주의 중심의 생활양식에서 벗어나며, 사랑과 정성으로 집집마다 고유의 가정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이 동시에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혼례는 각 가정의 종교, 가치관, 생활양식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에 혼인정신과 전통문화, 미래지향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건전하고 엄숙한 혼례문화가

정착된다면, 앞으로 미혼율, 비혼율, 이혼율을 감소시킬 것이며,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희망으로 혼인율이 높아져, 최근 가정과 국가의 새로운 과제인 저출산문제의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권병숙(2011), 전통혼례의 현대적 의미-친영례 중심으로-, 유교문화연구 제18집
- 김명자 외(2011), 아는 만큼 행복한 결혼 건강한 가족, 양서원
- 박범수(1999), 혼례의 근본정신과 혼례의식의 개선, 서울교육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지도연구 제25집
- 이희재(2002), 혼례의 철학적 의미, 유교사상연구, 한국유교학회
- 조희선(2002), 조선시대에서 혼인의 사회적 의미, 한국유교학회
- 한국의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2005), 세계의 혼인문화, 한국의국어대학교
- 조선일보사(1992), 사진으로 보는 가정의례
- 조희선(2008), 조선조 혼인규제와 실제에 대한 소고,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3권 1호
- 조희선·류미현(1999), 사례를 통해서 본 혼수관행문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7권 제1호



발제 2

시대공감형 혼례문화 만들기

한국 혼례산업*의 현황과 과제

김 인 옥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

* 혼례산업이라는 용어는 공식적 표현은 아니나 근대화이후 혼례문화는 이미 산업시장에 흡수되어 발달된 지 50여년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사용해도 무방하다 사료된다.

I. 머리말

혼인제도와 풍속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변천되어 왔다. 이 관행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고 후에는 법에 의하여 공인되었으며 마침내 하나의 사회제도가 되었다.

한국사회 혼례문화는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종전의 탈유교적 가치관 지향으로 혼례형식에 있어 외래문화요소의 개입이 용이하게 변화하였다. 이전에 정착되었던 생활양식이 서구문물과 일제의 강제력으로 한국인의 사회구조 및 생활변화에 파급되었다. 서양의 신식혼례가 소개되면서 기존 전통혼례의 틀에서 그 내용이 일부 서양식으로 교체되기도 하였다. 특히 1920년 영친왕의 혼례식에서 영친왕의 비(妃)가 일본에서 서양식 웨딩드레스를 입고 혼례식을 치렀는데, 이를 계기로 서구식 혼례가 확산되기에 이른다.

이후 서구식 혼례형태는 한국 혼례문화의 중심에 자리 잡으며 예식장을 비롯한 드레스산업과 뷰티산업, 허니문관광 등 혼례관련 산업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어왔다. 또한 신종교의 영향으로 예배당 뿐 아니라 절, 신문사, 강당 등에서까지 혼례식을 치르게 되었고, 전문예식장이 보급되면서 예식장 혼례가 보편화 된 것은 1960년대 부터이다. 예식장 혼례가 등장하면서 스승이나 종교계인사, 또는 직장상사를 주례로 모시고 신식결혼식을 치른 후에는 식당에서 잔치를 하는 관습이 생긴 것도 이때부터이다.

이와 같이 급속한 산업화 및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 함께 발달된 혼례문화와 더불어 성장한 총체적 산업군을 혼례산업이라 지칭한다. 근대화이후 한국의 혼례산업 전개는 크게 신규 혼례 혼용기를 거쳐 혼례산업 형성기, 혼례산업 성장기, 혼례산업 확대기, 혼례산업 전문기(김인옥, 2009)로 단계별 성장을 거두었다.

국가의 경제발전은 국민 개인의 경제적인 수준과 생활향상에도 영향을 미쳐 혼례관행도 서구의 소비 중심적 산업양상으로의 변화하였다. 2009년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한 부부는 약 30만 쌍이고, 당시 한국결혼문화연구소(주식회사 선우)의 자료에 따르면 혼례비용이 약 1억 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혼집을 제외한 순수 혼례비용은 약 4,800만원이다. 두 자료를 종합하면 주택마련비용을 제외한 국내 혼례산업 시장 규모는 15조원에 이른다. 물가상승과 비례하여 혼례비용은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여성정책 연구원(2011)에서 자체 생활체감정책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관혼상제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6.1%가 혼례라고 응답한 것은 혼례산업 발달에 따른 그 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간과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 여겨진다.

본 과제는 산업화의 발달에 따라 비대해진 국내 혼례산업 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와 혼례산업 업체에서 제공한 정보들을 재구성한 추정자료를 기반으로 하였다.

Ⅱ. 국내 혼례산업 시장규모

1. 국내 혼례현황

1996년 국내 혼인건수는 43만 쌍이었으나 이후 감소 추세보이며 2005년에 10만 쌍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국내 혼인건수는 32만 6천 쌍으로 발표되고 있다(<표 1>참조).

〈표 1〉 연도별 혼인건수

혼인년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혼인건수	434.9	389.0	373.5	360.4	332.1	318.4	304.9	302.5	308.6	314.3	330.6	343.6	327.7	309.8	326.1
조혼인율	9.4	8.4	8	7.6	7	6.7	6.3	6.3	6.4	6.5	6.8	7	6.6	6.2	6.5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각년도

〈표 2〉 남녀 초혼연령 추이

연도	여 성	남 성
1990	24.8	27.8
2000	26.5	29.3
2009	28.7	31.6
2010	28.9	31.8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각년도

남녀 초혼연령 추이를 보면 (<표 2>), 1990년 여성 24.8세, 남성 27.8세에서 2010년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8.9세인 한편, 남성은 31.8세로 해마다 초혼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3〉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연도	총 혼인건수	외국인과의 혼인	구성비
2000	332,090	11,605	3.5
2005	314,304	42,356	13.5
2006	330,634	38,759	11.7
2007	343,559	37,560	10.9
2008	327,715	36,204	11.0

연도	총 혼인건수	외국인과의 혼인	구성비
2009	309,759	33,300	10.8
2010	326,104	34,235	10.5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각년도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2005년 13.5%를 기록한 이후 10~11%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며 2010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3만4천235건으로 총 혼인건수의 1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참조). 이 중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과의 혼인건수는 2만6천274건으로 전체 외국인과의 혼인 중 76.7%를 차지한다.

2. 국내 혼례산업의 현황

근대화이후 혼례산업시장의 규모는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혼례산업의 범위와 분류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 한국표준산업 분류표(2009)에 의하면 웨딩홀과 웨딩컨설팅업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였고, 중분류에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 웨딩정보업체들 대다수는 영업의 방향을 혼례식과 혼례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군으로 구분하고 있다(송홍규, 2010). 혼례준비를 위한 분류는 웨딩, 한복, 드레스, 사진, 예물, 예단, 가전, 가구, 주방, 침구, 생활용품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혼례준비는 웨딩컨설팅업체를 중심으로 한 웨딩플래너들이 적극营业을 하며 혼례산업의 방향을 전개해 나아가는 주축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혼례산업의 범위를 크게 혼례장소 산업과 혼례준비 산업으로 분류한다. 혼례장소산업으로는 웨딩홀과 호텔 등 예식과 피로연을 위한 장소이고, 혼례준비산업에는 드레스, 사진, 예물, 예단, 생활용품 등 준비관련 산업 그리고 종사자 등 인력지원서비스를 포함한 이들에 관한 실태현황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1) 예식장시장규모

예식장 혼례식은 1930년대 구한말 이후 개화기를 거치면서 신식 혼례가 유행하고 부터이며, 현재 우리나라 혼례산업은 90년대 이후 양적으로 급속한 변화를 겪어오고 있다. 1980년대 호화 사치로 인한 국민 위화감 조성, 허례허식과 국가경제의 낭비, 교통 혼잡 등의 이유로 규제되어 왔던 특 2급 호텔에서의 예식이 1994년 7월부터 허용된 이후 이어서 1999년 8월부터 특 1급 호텔의 예식까지 허용됨에 따라 국내 예식장업계는 경쟁시대에 돌입했다.

호텔 예식장은 피로연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연회장을 이용할 경우 대부분의 호텔이

별도의 예식실이나 폐백실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일반예식장에서 드레스 대여, 사진촬영 등 특정 항목을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특 1급 호텔의 예식업은 대규모 시설 투자 없이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예식업으로 인한 식음 매출의 향상은 많은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호텔들은 기물과 일부 시설을 제외한 무리한 시설 투자 없이 기존의 대형 연회장을 활용해 예식장으로 꾸미고 주변 공간을 활용해 폐백실, 신부대기실 등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송홍규, 2002).

일부 호텔에서는 결혼식 실황 중계 시스템을 설치하여 결혼식장(웨딩홀)에 중계 카메라를 설치하여 예식 진행 상황을 인터넷으로 띄움으로써 바빠서 또는 먼 거리에 있어서 미처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나 친지 등이 집이나 직장 또는 지방이나 외국 등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신랑 신부의 결혼식을 같은 시간에 지켜 볼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마케팅 수단(송영석, 2000)으로 활용하는 호텔이 등장하였다.

현재 서울시내 특 1급 호텔은 호텔신라, 파크하얏트서울, 메이필드호텔, JW 메리어트호텔 서울, 코엑스인터컨티넨탈서울, 그랜드앰배서더서울, 임피리얼팰리스호텔, 리츠칼튼서울, 롯데호텔월드, 호텔 롯데, 웨스틴조선호텔 서울, 그랜드 힐튼 서울, 셰라톤그랜드워커힐서울, 밀레니엄 서울힐튼, 르네상스 서울 호텔, 서울프라자 호텔,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총 18개의 호텔에서 결혼식을 치를 수 있다.

<표 4>은 2006년 주요 특 1급 호텔의 웨딩 매출과 호텔 전체 매출 대비 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특 1급 호텔의 경우 웨딩연회 매출은 전체 호텔매출대비 20~30%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특 1급 호텔 웨딩 매출현황

(2006년 1월~12월/ 단위: 원)

호텔	I호텔	L호텔	S호텔
웨딩매출	9,005,202,300	4,023,660,622	5,746,162,500
호텔매출대비	37%	17%	29%
호텔	H호텔	C호텔	G.H.호텔
웨딩매출	6,405,535,041	3,251,756,260	2,532,020,115
호텔매출대비	33%	25%	29%

자료: 호텔사에서 제공된 매출실적 자료를 논자가 재 구성함.

한편, 1994년 7월 특 2급 호텔의 예식업이 허용된 이후 예식은 특 2급 호텔매출에 크게 기여 해왔다. 한때는 호화사치의 대명사격으로 치부되기도 했으나 호텔업계의 노력과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전환으로 특 2급 호텔예식은 일반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고, 특 1급

호텔의 예식업 허용으로 고객층을 잠식당할 것을 우려하였으나 신 메뉴 개발 및 조정, 특별 이벤트 행사, 홍보 및 판촉 강화 등 대책마련과 일부 특 2급 호텔은 예식 전담 Sales Man을 배치하여 Wedding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일반 여행사 및 카드회사와 연계하여 주중과 주말 및 전체 매출의 2~3%의 할인정책을 해주는 호텔이 등장하였으며, 외부업체와도 제휴하여 판촉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 특 2급 호텔은 롯데시티호텔 마포, 노보텔엠베서더 강남서울 외 총 26개의 특 2급 호텔이 한국관광호텔업협회에 등록 되어 있다.

<표 5>은 2009년 주요 특 2급 호텔의 웨딩 매출과 호텔 전체 매출 대비 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특 2급 호텔의 경우 웨딩매출은 총 매출대비 50~60%대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5〉 특 2급 호텔 웨딩 매출현황

(2009년 1월~12월/ 단위 : 원)

호텔	L호텔	P호텔	N호텔	S호텔	H호텔
웨딩매출	4,518,422,000	3,830,305,000	5,032,863,000	6,396,564,000	2,041,118,000
호텔매출대비	67%	51%	69%	68%	32%

자료: 호텔사에서 제공된 매출실적 자료를 논자가 재구성함.

한편, 통계청에서 발표한 <표 6>에 따르면, 연도별 전국 전문예식장 규모는 2007년 1,003개이었으나 2009년에 1002개로 집계되고 있다. 종사자수는 2009년 14,313명이고 이 중 여자는 7581명으로 남자 6,732명보다 1000여명 정도 더 많았다. 예식장업의 총 매출액은 2009년 현재 약 9,157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6〉 예식장 사업체 현황

연도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남자(명)	여자(명)	매출액(백만원)
2007	1,003	11,907	5,457	6,450	761,418
2008	1,014	14,079	6,657	7,422	919,671
2009	1,002	14,313	6,732	7,581	915,743

이들 혼례장소 이용에 관한 보건사회연구원 조사(1993) 자료에 따르면, 90.2%가 일반예식장에서 식을 올렸고, 종교시설이 4.3%, 공공무료시설이 1.6%로 나타났다. 2001년(한국소비자원, 2001)에는 일반 예식장이 64.4%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뷔페식당 및 대형음식점과 같은 회관예식장이 10.2%, 세 번째는 종교시설이 9.6%, 네 번째는 호텔이 9.3%로 나타났으며 공공기관 및 회사의 강당 등 거의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한 무료예식장의 이용률은 전체 조사대상자 중 5.2%에 그쳤다. 송홍규(2010)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일반웨딩홀 이용률이 58.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료 개방되는 공공기관 이용률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표 7>참조)하였다.

〈표 7〉 혼례가 가능한 장소별 분류

전국	일반 웨딩홀	호텔 웨딩홀	종교 예식	뷔페 웨딩홀	컨벤션 센터	전통 혼례	공공 기관	하우스 웨딩홀	회사 강당	야외 웨딩홀	기타
2,269(개)	1,330	253	184	140	117	74	73	58	25	19	40
100%	58.6%	11.2%	8.1	6.2	5.2	3.3	3.2	2.6	1.1	0.8	1.8

자료: 송홍규(2010), 2010한국웨딩학회 학술대회 발표

이상의 자료를 보면, 일반예식장 이용 비율은 매 시기별 감소하는 반면 종교시설 및 호텔 이용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등 무료예식시설의 이용은 매 시기별 5%내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오늘날 결혼식이 가능한 장소는 일반 예식장 외 종교시설, 뷔페연회장, 전통혼례식장, 컨벤션센터, 공공기관, 회사강당, 야외웨딩홀 등에서 치러지므로 전체 예식장업의 시장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표 8>은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한 예식장소별 예식비용을 비교한 것이다. 호텔예식장은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특 2급 호텔과 일반예식장을 대상으로 예식장소별 예식비용을 조사한 자료이다. 총비용 중에서 피로연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호텔예식장은 총비용의 60%, 일반예식장은 중심지역이 51%, 외곽지역이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식장 유형별 특징이 뚜렷하여 호텔예식장은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예식을 올릴 수 있는 반면, 피로연 비용이 비싸고 드레스 대여 등 각종 예식 관련 부대서비스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일반예식장은 예식 관련 제반 서비스가 제공되어 편리한 반면 사진촬영, 드레스 대여 등 몇 가지 항목을 필수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표 8〉 예식장소별 예식비용 비교

(단위: 원)

구 분	호텔예식장	일반예식장	
		중심지	외곽
예식실사용료	20만	30만	18만
혼구용품	10만	30만	5만
폐백실	무료	7만	3만
폐백의상	무료	10만	

구 분	호텔예식장	일반예식장	
		중심지	외곽
폐백음식	20만~45만	20만*	20만*
원판사진	48만(8판)	73만(앨범)	55만~70만
스냅사진	55만(앨범)		
비디오촬영	30만	14만	14만
야외촬영	70만~110만	55만	50만~70만
드레스 대여	50만~150만	40만~80만	20만~50만
턱시도 대여	20만~30만	20만	15만~20만
신부화장	50만	20만	17만
신랑화장		5만	3만
부케	10만	8만~15만	10만
신랑, 혼주용 꽃			혼구용품에 포함
피아노 연주	30만(3중주)	1만	1만
피로연(300명)	828만~1,080만	360만~390만	360만~450만
꽃장식	90만(꽃길)	혼구용품에 포함 (꽃길, 드라이아이스)	25만(단상)
드라이아이스 안개연출	무료		10만
총비용	1,331만~1,758만	693만~770만	626만~786만

자료: 한국소비자원, 예식장소별 예식비용 자료조사, 1996

* 폐백음식을 취급하지 않고 있으나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일반예식장의 통상적인 폐백음식비용 20만 원을 임의 적용

과거에 독점 웨딩사업을 해오던 일반웨딩홀은 현재에 많은 위기를 맞고 있다. 특급호텔의 본격적인 예식사업 진출과 허가제였던 웨딩업이 신고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유사웨딩업체가 급증하고 있어 낙후된 웨딩홀과 피로연장, 협소한 주차시설 등으로는 경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동문회관, 구민회관 등 회관과 야외 예식장, 교회, 성당 등 매우 다양한 장소가 예식장으로 제공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신세대들이 틀에 박힌 예식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예식장은 작아진 예식시장에서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90년대 말 이후 등장한 웨딩컨설팅업은 웨딩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풍부한 경험을 가진 컨설턴트가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직업, 소득, 주거형태, 예상예식비용 등 모든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가장 합리적인 예식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며 예식장 섭외부터 드레스, 메이크업, 사진촬영, 신혼여행, 한복, 예물, 예단까지 혼례절차 전반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매체의 결합과 정보교류가 가속화됨으로써 웨딩컨설팅업체

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웨딩컨설팅업은 전국에 5백여 개가 성업 중이며 주로 서울 강남에 3백여 개가 밀집해 있다. 인터넷 바다에 정보가 무궁무진하나 옥석을 가리기엔 안목과 시간이 부족한 신랑, 신부는 일생일대의 결혼식을 컨설팅업체에 맡기는 커플이 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예비 신혼 커플들의 40~50%가 컨설팅 업체를 찾아 직간접적으로 웨딩플래너를 통해 결혼준비의 도움을 받거나 결혼관련 상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혼례준비시장 규모

혼례준비시장의 내용에는 <표 9>에서와 같이 드레스, 메이크업, 사진 등 웨딩패키지를 포함한 주요예식산업 외 한복, 예물, 예단, 가전, 가구, 생활용품 등이 포함 며 준비를 도와주는 종사자들이 있다.

〈표 9〉 혼례준비산업 분류

구분	예식	한복/침구	예물/예단	가전	가구	생활용품
품목	드레스 메이크업 사진 도우미 허니문 폐백 이바지 피부관리 청첩장	신랑·신부한복 양가부모한복 침구세트 이불세트 예단이불	신랑신부예물 신랑신부양복 신랑부모예단 신랑친척예단 신부화장품	TV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오븐 전기밥솥 전화기 에이컨 김치냉장고 다리미	침대 장롱 서랍장 화장대 협탁 소파 식탁 거실장	홈세트 후라이팬 냄비 수저세트 믹서기 조리용품 잡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면 이들 혼례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12조 2천 4백억으로 추정되며, 이 중 예식비용이 30.1%를 차지하고 한복 6.7%, 예물예단 18.3%, 가전 17.2%, 가구 14.4%, 생활용품이 12.2% 차지(송홍규 2010)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한편, 1990년대 중반 웨딩매니저라는 이름으로 혼례준비 서비스가 혼례시장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으며, 1997년 각종 매체를 통해 이색 직업으로 소개 되었을 때만 해도 웨딩매니저 대부분은 프리랜서였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웨딩드레스 업체나 뷰티업체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예비신부들에게 드레스, 메이크업, 스튜디오업체 등을 소개시켜 주는 것을 주요업무로 삼았다. 웨딩플래너는 웨딩에 관련된 최선의 정보를 제공하고, 웨딩관련 모든 활동의 품격을 높이고 시간과 예산을 설계하는 직업인이다. 최근 젊은 세대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특별한 웨딩을 진행시켜줌으로써 점차 웨딩플래너는 기획자이자 코디네

이터로서 역할이 요구된다.

한국직업사전(2006)에 웨딩플래너라는 직업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만 종사자 현황은 2007년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에 의하면 ‘결혼상담원을 포함한 웨딩플래너의 종사자 수는 총 2,77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직업사전, 2006). 그러나 소규모 영세업체로 시작한 많은 웨딩컨설팅업체가 매년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를 반복하면서 매 시기별 정확한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직까지 웨딩플래너에 대한 정확한 직무분석 자료는 없지만 한국직업사전(2006)에 소개된 웨딩플래너의 직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의 직업, 소득, 취향과 개성, 예상 예식비용 등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맞는 웨딩관련 정보를 산출하여 합리적인 예식비용 견적을 뽑아내며, 상담커플에게 가장 걸맞은 웨딩업체나 상품을 소개한다.

둘째, 상담을 통하여 커플들이 선택할 상품들의 규모가 대강 정해지면 견적서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한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혼수품 구입, 신혼여행 예약, 결혼시장 예약, 드레스 및 메이크업 준비 등 전반적인 결혼준비를 대행한다.

셋째, 구입한 웨딩상품들이 제대로 서비스 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체크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야외 촬영에서부터 본식이 있는 날 직접 예식장으로 찾아가 전체적인 스케줄을 관리한다. 특히 결혼식 날에도 직접 동행해 결혼식의 원만한 진행을 돕고 긴장되어 있는 신랑, 신부의 대화 상대자가 되어 주기도 한다.

넷째, 결혼식이 거의 없는 비수기 때는 사후관리 및 홍보 업무를 하거나, 웨딩박람회에 참가하여 예비 고객을 확보한다.

현재 국내 웨딩플래너들은 웨딩홀, 드레스숍, 스튜디오숍, 플라워숍, 메이크업숍, 허니문, 혼수, 예단, 주얼리, 뷔페연회 등과 계약을 맺고 고객들을 연결해 주는 것을 주 업무로 삼고 있다. 이들은 고객들에게 선정된 업체로부터 소개시켜 준 대가로 일종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생활체감형 관혼상제 실천’을 위한 조사¹⁾에 따르면, 현재 국내 혼례산업 서비스 수준은 질적인 면에서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혼례산업 서비스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43.6%가 질적인 면에서 서비스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수준(26.8%)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 혼례문화 개선을 위해 종사자교육(45.5%)이 가장 필요하고 다음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서비스 교육(38.8%)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혼례산업의 성장과 함께 혼례서비스 인식 및 개선의 노력이 매우 절실함을 나타내 준 결과라 할 수 있다.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2011년 5월 자체 생활체감정책단을 대상으로 ‘생활체감형 관혼상제 실천’을 위한 온라인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국내 호텔연회예약 종사자는 호텔관광계열 교육기관을 통해 일련의 서비스업무 및 전문 교육을 받고 진출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예식장 종사원과 웨딩컨설팅업체의 웨딩플래너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전국의 웨딩관련학과는 부산여자대학, 창원전문대학, 동부산대학, 강릉영동대학 등 지방 전문대학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인천문예전문학교 등 전문학교에서 웨딩플래너과를 운영 중에 있다. 사설 웨딩플래너 양성기관은 듀오아카데미, 아트브라이덜, (사)한국웨딩플래너 협회 등에서 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양성기관은 주로 단기간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국내 웨딩플래너들은 위의 웨딩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웨딩플래너 양성기관을 통해 교육 받은 경우 또는 개인적으로 적성에 맞아 활동하는 경우로 특별한 자격제한은 없고 고졸이상의 학력이면 가능하다. 자격제한 조건이 미비하다보니 직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매우 낮으며 이직률이 높다보니 종사자들의 전문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Ⅲ. 혼례산업의 문제와 개선방향

국내 혼례산업은 오늘날 의례서비스 지원 산업으로 산업 의존도가 높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혼례의 모든 절차를 진행시켜 줄 예식장의 예약상담 직원을 비롯한 웨딩플래너들의 역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고객선점의 효과는 고객 점점 지점에서 상담을 이끌어가는 종사자들에게 달려 있고, 결국 혼례산업 시장에서 이들이 주는 정보에 따라 혼례상품구매와 혼례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는 것이다.

국내 혼례산업의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첫째, 혼례산업 성장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가 매우 미비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신력을 갖춘 기관에서의 실태연구 및 조사 자료는 2000년대 초 이후 전무한 실정이다. 혼례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관련업종은 예식장을 포함한다레스, 메이크업, 사진, 예물, 예단, 청첩장, 플라워 등 약 30여종에 이른다. 예식장만 하더라도 일반예식장외에 종교시설, 뷔페연회장, 전통혼례식장, 컨벤션센터, 공공기관, 야외웨딩 등에서 혼례식이 진행되므로 전체 예식업의 시장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둘째, 국내 혼례산업 시장의 매우 확대되고 있으나 서비스 수준은 질적인 면에서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질적인 면에서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혼례관련산업에 대한 제도 및 장치가 미흡한 실정에서 소비자 분쟁사례는 지속적으로 제기²⁾되어 오고 있다(매경 이코노미, 2011).

2) 매경이코노미, 2011. 9. 28일자 예식장업체, 드스메업체, 예단,예물업체, 웨딩컨설팅업체 소비자 피해 사례 참조

셋째,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한 직업사전(2006)에 웨딩플래너와 예식장종사원이라는 포괄적 표현의 직업인으로 소개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진출 경로와 직무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역할 및 자질을 검토하는 절차는 전무하다. 또한 혼례의 의미와 진정성에 대한 이들의 인식 수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혼례산업시장 시장규모는 15조원을 상회하며 산업화의 과정에서 확대되어 팽창성장하고 있으나 그 간의 혼례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가 개진된 바 없으며, 사회적 규제와 장치는 미비한 상황에서 산업군의 분류와 현황 파악도 부족하다. 따라서 혼례산업의 성장 발달에 따른 차후의 개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혼례산업시장은 매우 확대되어 발달하였으나 혼례산업과 관련한 공적기관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간 한국소비자원에서 4차례(1991,1993,1995,2001)에 걸쳐 시행된 연구가 가장 최근에 조사된 자료이다. 따라서 혼례시장의 주요산업군(예식장, 호텔 등 예식과 피로연장소), 보조산업군(혼례관련 상품판매 업체)에 대한 분류와 현황 및 실태조사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종사자들의 직무역할, 직무감, 복지후생, 서비스 교육 실시 및 실태 등에 대한 현황 파악도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혼례는 관혼상제 의례 중 현대사회 가장 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지목한 바와 같이 많은 현대인들이 한국 혼례문화의 병폐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혼례산업 및 종사자들을 관리 감독한 전담 부처나 기관의 설치가 요구된다. 이들 관리 부서에서는 혼례상품 가격 및 혼례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와 지침을 마련토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앞으로 혼례산업의 양상은 혼례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고자하는 산업 종사자들의 역할 비중이 갈수록 증대될 전망이다. 혼례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행사가 아니므로 상품 구매자들은 구매경험 빈도가 극히 낮다. 혼례를 치르고자하는 미혼남녀 대다수는 혼례상품의 선행 구매경험 부족으로 혼례 행사를 진행시켜주는 웨딩플래너와 혼례상품 판매자들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혼례산업의 1차상담자인 예식장종사원과 웨딩플래너는 특별한 자격제한은 없고 고졸이상의 학력이면 가능하다. 자격제한 조건이 미비하다보니 직업에 대한 진입과 이직이 높으며, 종사자들의 전문성 결여와 자부심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혼례산업 종사자들의 혼인과 혼례의 의미를 포함한 전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정기적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차후에는 혼례산업 종사자들의 자격규정 및 자격요건을 제시한 자격증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국내 혼례산업은 주택마련 비용 40조원을 포함하여 약 55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산업규모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산업의 체계적 시스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이끌어갈 구심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한국웨딩학회와 (사)한국웨딩플래너협회, (사)한국웨딩산업진흥협회 등 혼례와 관련된 단체가 있으나 이들 단체의 활동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그간 혼례 문제로 인한 사회적 파장과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나 정부차원의 정책지침은 마련되지 않고, 간혹 문제가 불거지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매번 간소한 결혼식, 검소한 혼인문화라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거대산업시장으로서 대규모 혼례산업 시장은 형성되어 있고 관련된 산업군은 수십 여종이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소속된 종사자도 수만 명에 이르는 현실 속에서 혼례를 간소하고 검소하게 치르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결해 나아가야 할 초점이 수요자 중심의 노력에서 얻어지기 보다는 산업군과 종사자 중심의 공급자로 개선방향을 선회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혼례 산업군을 지휘감독 할 관할 기관이 있어야 하고,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혼례교육과 서비스교육의 실시 등 서비스개선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인옥(2007). 가정의례연구. 한국학술정보(주)
- _____(2009). 근대화이후 한국 혼례산업 변화에 관한 고찰. 한국웨딩학회지. 창간호
- 매경이코노미 ‘웨딩산업의 그늘-예식장 3개월 전 취소해도 식대 20% 요구- 2011. 9. 28.일자
- 송홍규(2010). 한국웨딩산업의 현황과 전망, 2010한국웨딩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 이향숙(2010). 웨딩플래너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웨딩학회지. 제2호.
- 한국결혼문화연구소(2009). 좋은만남 (주)선우 부설. 결혼비용조사.
- 한국고용정보원(2006). 2007 한국직업사전
- 한국고용정보원(2009). 2009 한국직업전망
- 한국관광호텔업협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3).
- 한국소비자원(1996). 예식장소별 예식비용
- 한국소비자원(2001). 예식장 이용실태
- 케어어넷 <http://www.careernet.re.kr/>



발제 3

시대공감형 혼례문화 만들기

사회지도층의 아름다운 혼인실천사례

신 산 철

(생활개혁실천협의회 사무총장)

들어가며

우리의 혼례문화는 상부상조의 문화를 통한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기능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의 혼례문화는 과시와 체면으로 인한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 가는데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주제발제의 내용으로 소개되는 두 사례와 혼인절차별 특성에서 소개된 일곱 사례¹⁾는 현대사회 혼례문화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꾸기 위해 실천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귀감이 된다.

I. 사회지도층의 사례

① 함속에 넣은 사람의 편지

강윤구 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3년에 아들, 2006년에 딸을 혼인시켰다.

아들과 딸 모두 법원예식장에서 혼인식을 치렀다. 법원예식장은 식장이 그리 넓지 않고 법원 가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으로 식사도 구내식당을 이용함으로써 비용이 저렴해서 좋았다. 아들의 혼인예식에서는 혼수와 예단을 하지 않았고 예물은 두 사람에게 커플링을 해주었다. 혼수는 당시 아들과 며느리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중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되었다. 예단은 아무리 간소하게 한다 하더라도 첫 손자인데 할아버지께 와이셔츠라도 한 벌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였으나 그렇게 되면 할머니, 작은 아버지, 고모, 이모 등 어디까지 해야 할지 끝이 없을 것 같아 생각 끝에 사돈 어르신들께 혼수와 예단 그리고 이바지 음식을 생략하자고 말씀을 드려 양해를 구했다. 예단과 혼수를 하지 않아도 되니 혼인식만 준비하면 되었다. 혼인식 일주일 정도 남겨 놓은 어느 날 아내가 함을 보내야 하는데 딸아이가 외국에 나갔을 때 새 언니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준비한 가방 하나와 소품 밖에는 없으니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서 넣자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미 일주

1) 먼저 실천하는 용기, 생활개혁실천협의회, 2006

먼저 실천하는 용기는 생활개혁실천협의회에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사회지도층의 소신 있는 혼례와 상례 실천 사례를 모아 발간한 사례집이다. 절차별 특성은 주제 발제에 소개된 두 사례와 실천 사례에 소개된 일곱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일곱 사례에 소개된 분들은 김 구 교수(서울대), 박종안 교수(순천향대), 이정덕 교수(동국대), 손동아 목사(인왕교회), 손봉호 교수(서울대), 송 복 교수(연세대)이다.

일을 고민하여 썼으니 내게도 편지를 써서 달라는 것이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참 좋은 생각이라는 뜻에서 나도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다.

민정아!!

네가 우리 가족이 되는 것은 세빈이는 물론이고
어머니, 혜원이 그리고 나까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행운이요 축복이다
그 동안 아들하나 딸 하나 낳아 길러온 것은
또 다른 아들하나 딸 하나를 더 맞이하기 위함이었던가 보다
이제 민정이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비워두었던 큰 딸 자리가 가득 채워지는구나
세빈이가 우리 모두의 사랑이요 믿음이요 자부심이었듯이
이제 민정이 너 또한
우리 모두의 사랑이요 믿음이요 자부심이다
항상 자중자애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하자꾸나

2003. 11. 29

기쁨 넘치는 사랑으로 아버지가...

대충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나의 편지와 또 다른 엄마의 편지를 함에 넣어 보내드렸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사돈댁 어르신들께서도 함속에 들어있는 사랑의 편지에 크게 감명을 받으신 듯 하고 할머니, 외할머니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 아이 시집가서 큰 고생 안 하겠구나 하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2006년 딸이 혼인할 때는 지난번의 경험이 있어서인지 한결 마음이 편했다. 혼수, 예단, 이바지 음식은 처음부터 아예 할 생각을 안하고 혼인이 결정되자마자 사돈 어르신들을 만나 첫 아이 때의 예를 말씀드리고 동의를 구했다. 다행히 사돈 어르신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셔서 간소한 혼례를 치를 수 있었다.

아이들 혼인을 치르면서 둘 다 넉넉하게 해주지 못한 것 같아 마음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것 같으나 아이들도 마음에 두지 않은 것 같아 그 때나 지금이나 홀가분하다. 무엇보다 마음먹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도 간소한 혼례를 양해해주신 양쪽 어르신들께 늘 감사드리고 있다.

신혼부부의 행복은...

신혼부부의 행복의 강도는 혼인식이나 혼인예물의 호화로움 정도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의 사랑의 깊이에 따르는 것이며, 양가 부모님과 일가친척, 선후배 동료들의 진심 어린 축복이 있을 때 행복의 강도가 훨씬 더해질 것이다. 혼인예식은 다만 하객으로 참석하신 분들 앞에서 부부가 되었음을 알리고 그분들로부터 부부가 되었음을 인정받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검소한 혼례문화 사회지도층이 앞장서서 실천하자

우리 사회 호화사치성 혼례와 혼수가 널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특히 사회지도층이 앞장서서 검소한 혼례문화를 몸소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의례의 실천을 통한 생활개혁이 폭 넓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② 처음처럼 실천한 용기 -전통이 되어버린 우리 집안의 혼인예식-

김평일 교장 (가나안농군학교)

1998년 아들의 혼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소하지만 뜻 깊게 진행하였다. 따라서 다가오는 딸의 혼인도 참되고 아름다우면서도 간소한 혼인식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혼인이 혼인하는 당사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사돈의 의견도 중요한지라 생각이 많았다. 아닌 게 아니라 혼인은 전통적으로 남자 집안에서 주관하는 범위가 넓어서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딸의 혼인을 기도하며 준비했다. 딸의 혼인은 2005년 4월에 있었다. 혼인준비 과정은 아들의 혼인 때와 동일하다. 1998년 아들의 혼인식에는 양가 친척과 친구, 주례 목사님을 포함하여 45명의 하객이 참여하여 축하 해주었다. 뒤돌아보면 아들의 혼인식은 후회가 없는 혼인식이었다. 간소하였지만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혼인식이었기 때문이다. 딸의 혼인식도 간소하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혼인식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했다. 시간이 흐르고 딸의 혼인식 일정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사돈어르신들을 만나는 일정도 정해져 사돈어르신과 상견례 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사돈어르신들에게 참고로 들으시도록 아들의 혼인식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 아들의 혼인식 이야기를 들으신 사돈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흔쾌히 아들의 혼인식과 동일하게 진행하자고 말씀을 하셨다. 사돈 어르신의 결정으로 양가 친척은 40명으로 하고 주례, 축하, 친구들을 포함하여 10명을 초청하기로 하였다. 딸과 사위도 흔쾌히 동의했다. 아마도 딸은 동생의 혼인식을 기억하며 어느 정도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위는 갑

작스런 제안에 당황할 만도 하지만 사위와 딸 모두가 좋아했다. 딸의 혼인식이 아들의 혼인처럼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와 사돈어르신께 감사한다.

혼인예식 절차를 살펴보면 예물은 시계도 하지 않고 커플링으로 준비했다. 예식 당일 아들 혼인식처럼 평소 내 자신이 좋아하던 옷을 깨끗하게 손질해서 입었다. 혼수는 꼭 필요한 것만 했다. 즉 저렴한 냉장고, 세탁기, TV 등과 같이 기본적인 것만 준비했다.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것이 보람도 있고 새롭게 나오는 것을 그때그때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 또한 지금은 둘만의 생활이니 생활필수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자녀의 혼인식을 진행하는데 대한 걱정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빚을 내서 혼인식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혼인식을 하는 당일에 혼인식장으로 사용한 가나안 교회 예배당도 꽃 장식을 전혀 하지 않았다. 혼인식 당일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하였고 온실을 하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화분을 몇 개 놓은 것이 전부였다. 혼인예식을 하는데 예배당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도 낭비이며 허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혼인식 하는 당일 혼인식장이 아름다우면 좋겠지만 잠깐 사용하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낭비며 허식이라는 것이다. 축가는 주부들이 기쁨으로 해주었다. 축가를 부른 사람들은 혼인식 이후 이처럼 아름답고 깨끗하고 성스러운 혼인식은 처음 보았다고 말씀해 주셨다.

혼인식을 마친 후 잔치는 가나안농군학교 뜰에서 10가지 정도의 뷔페음식을 준비하여 나누었다.

아들과 딸의 혼인식을 하고 난 후 부족함이나 서운함이 없었다. 혼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혼인문화의 변화를 위해서.....

혼인식은 검소하면서도 아름답게 하려는 마음은 다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 혼인식에는 생각처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뿌린 것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결국 뿌린 만큼 거둔다는 것은 받은 만큼 꼭 보답을 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축의금도 있는 범위에서 부담 없이 물 흐르듯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뿌린 것을 거둔다는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현재의 혼인문화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배금주의에 대한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국 배금주의 의식이 변화하면 혼인문화도 변화할 것으로 생각한다.

허례허식이 없어져야 한다. 혼인식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기과시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정해 놓고 준비한다면 그 수준은 점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비싼 것이 더 잘된다고 하지 않는가? 크고 좋은 곳에서 혼인식을 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

다. 결국 밤에 촛불을 밝히면 빛이 있는 것처럼 신랑과 신부가 함께 함으로 빛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혼인식은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 혼인식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검소하면서도 아름답게 혼인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한다. 따라서 가난한 농군학교를 혼인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고 싶다. 아름답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잔치음식도 간소하게 나눌 수 있도록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크리스천 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면 좋겠다.

혼인의 의미에 대해.....

혼인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다는 것은 결국 가정을 만드신 것이다. 가정을 잘 준비하는 것은 뜻과 마음, 생각, 신앙이 같아야 한다. 외형적인 것만 맞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즐겁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과 혼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지도층의 혼인문화

가정에서는 부모가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고 사회에서는 사회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미 자녀들의 혼인식을 진행한 사회지도층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은가? 따라서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 중에 지금 자녀들을 혼인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검소하면서도 아름답게 혼인식을 진행해야 한다. 사회지도층의 모범 사례가 많이 나오고 그 사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기대한다.

Ⅱ. 아름다운 혼인사례의 절차별 특성

1. 약혼식

대다수의 사례에서 약혼식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양가의 상견례와 혼인의 제반 사항에 대한 협의를 겸한 자리로 진행하였다. 박종안 순천향대 교수는 약혼식을 사돈 어르신께서 하고 싶다는 부탁이 있으셨기 때문에 진행했다. 막내딸의 사회와 이질(신부의 이종사촌동생들)들의 악기 연주로 조촐하게 진행되었다. 양가에서 각각 20여분이 참여하고 약혼식장에 이름과 친척관계를 명패로 만들어 자리 앞에 두어 두 사람의 약혼과 양가의 친척 분들이 인사를 나누고 함께 알아가는 소중한 자리로 진행되었다.

2. 함들이

함들이는 생략하거나 신랑이 혼자서 직접 가져오거나 또는 친구 한명이 동행하여 함들이를 진행하였다. 앞의 사례에서 소개한 강운구 원장의 함속에 넣은 사랑의 편지는 함들이의 아름다운 사례라고 생각된다.

3. 예단

예단은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했다. 또한 손동아 목사는 예단으로 사돈어르신들에게 한복감을 선물로 드리는 것으로 하였다. 박종안 교수는 예단으로 500만원을 드렸는데 사돈 어르신들이 딸에게 200만원을 그리고 박종안 교수 부부에게 300만원을 다시 주셨다. 따라서 안주고 안 받은 것이 되었다. 이정덕 교수는 가장 예민한 부분인 예단에 대해서 딸과 상의를 했을 때 딸은 이미 혼인할 사람과 상의를 마쳤다고 했다. 이정덕 교수는 혼인 당사자들이 계획한 대로 신랑 집안의 친척들을 모셔 혼인 전 인사를 대신해 식사를 대접하며 간단한 선물을 드리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정덕 교수도 집안 친척들에게 식사를 겸한 자리에서 인사 드리는 것으로 예단을 대신하였다. 예단으로 주고받는 양복과 한복도 새로운 옷을 구입하지 않고 평소 입던 옷을 깨끗하게 손질하여 입고 혼인식에 참석한 혼인사례가 대다수이다.

4. 예물

예물은 커플링으로 하거나 의미를 담아 준비했다. 박종안 교수는 예물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18K의 금으로 신랑·신부의 이름을 새겨서 해 주었다. 영원한 반지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름을 뚜렷이 드러나도록 디자인 했다. 이정덕 교수는 14K 커플링으로 준비하였으며 특별히 신랑의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오래 전 신랑에게 혼인할 때 신부에게 주라고 하신 반지를 선물해 주셨다. 이 선물에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 졌는지 모른다고 했다. 송 복 교수는 두 아들의 혼인에 아내가 끼던 반지를 며느리에게 선물하였다. 이는 가정의 정신과 유품을 남겨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각 가정마다 특유의 혼련방식, 분위기 등등의 가풍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가풍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5. 혼수준비

혼수준비 역시 간소하게 준비되었다. 김평일 교장은 혼수는 꼭 필요한 것으로 했으며 저렴한 냉장고, 세탁기, TV 등과 같이 기본적인 것만 했다.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것이 보람도 있고 새롭게 나오는 것을 그때그때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손동아 목사는

혼수 준비는 둘째 딸의 혼인에서 언니와 친구들이 일부 필요한 부분을 거들었다. 손동아 목사는 혼수 준비에서 제일 큰 문제는 혼인 당사자의 독자적인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고 부모가 휘두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래서 손동아 목사는 둘째 딸의 혼수는 신혼살림을 꾸릴 집이나 혼수를 준비하는 모든 것을 혼인 당사자인 사위될 사람과 딸아이의 의견을 100%로 따르기로 했다. 다만 그들이 조언과 협력을 요청하는 부분만 부모로서 또한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자와 협력자로서의 역할만 했다.

6. 하객초청

혼인사례의 대다수가 하객초청 범위를 축소하였다. 김평일 교장은 양가 친척은 40명으로 하고 주례, 축가, 친구들을 포함하여 10명을 초청하기로 하였다. 김 구 교수는 하객으로 형제분 가족들만 초청하고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하였다. 송 복 교수는 예식 당일 같은 마을에서 딸의 성장과정을 지켜보고 함께 삶을 나누시던 10분을 포함해서 양가 60명 정도 참여하였다. 손봉호 교수는 혼인을 진행하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들이 혼인하는 것을 알리지 않는 것이었다. 하객으로 초청된 분들은 사촌 이내의 친지들이었으며 교회와 직장,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혼인예식 당일 혼인식장인 교회에 들렀다가 혼인을 알게 된 한분이 연락을 함으로 갑자기 알고 찾아온 몇 분과 친지를 포함해 양가 100명이 넘지 않았다.

이정덕 교수는 하객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혼인을 진정으로 축복하면서 평생 지켜볼 사람들로 모시고 싶었다. 하객 초청 범위는 당초 50~60분 정도에서 조금 벗어나 100여 분이 참석해 신랑과 신부를 축하해 주셨다. 하객 초청 범위는 4촌까지로 했고 가까운 직장 동료와 동창들이 찾아와 축하해 주었다. 물론 딸과 사위의 참다운 친구, 친지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런 혼인식에 대해 가까운 몇몇 분들이 그동안 무수히 뿌린 축의금이 억울하지도 않느냐고 만류하기 조차 했다. 박종안 교수는 혼인식 이후에 소식을 들은 지인들로부터 섭섭하다는 소리를 들어 좀 어색한 분위기도 있었다고 하면서 혼인식에 눈도장 찍으로 오는 문화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 했다. 흔히 청첩장을 고지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고지서로 생각된다면 진심으로 축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까 의문스럽다고 했다.

김평일 교장과 손봉호 교수는 청첩장을 하지 않았으며 혼인식 이후에 자녀의 혼인을 알리는 인사장을 보냈다.

7. 축의금

축의금은 혼인사례에서 대다수 받지 않았다. 손동아 목사는 양가에서 축의금을 받지 않

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축의금을 내시는 분들이 있었다. 그 때 모아진 축의금이 950만원이었다. 그래서 50만원을 더 보태서 1천만원 만들어 500만원은 이라크 전쟁 민간 부상자 치료를 위해 한국기아대책기구에 기탁하고 500만원은 북한 어린이를 돕는 생명나눔 운동본부에 기탁했다. 그리고 축의금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와 아울러 축의금의 사용에 대한 내용을 알려 드렸다. 물론 친척 분들에게는 축의금을 받았다. 그것은 친척으로서 당연히 서로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친척들이 보낸 축의금은 혼수를 준비하는데 사용했다.

8. 혼인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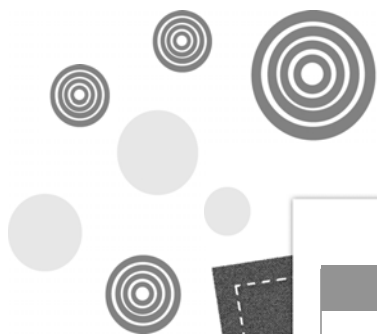
혼인예식은 혼인식 당일 웃음꽃이 피어난 축제였다. 혼인예식은 양가의 부모님과 혼인식날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 모두에게 진정으로 하객들이 축하해 주는 자리로 웃음꽃으로 가득했다. 따라서 진행되는 순서마다 의미가 살아나고 신랑과 신부 그리고 하객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진정한 축제의 한 마당으로 또는 아름다운 혼인예식으로 기억된다고 했다. 이정덕 교수는 딸의 혼인식을 2003년 6월 13일 평일인 금요일에 허브나라 야외의 별빛무대에서 진행했다. 혼인식 순서에는 신랑과 신부가 직접참여 하는 부분이 많았다. 그동안 그들이 살아왔고 함께 해온 과정과 가족사진들을 담아 자그마한 신문을 정성껏 만들어 누구보다 둘을 잘 아는 모든 하객들에게 선물했다. 또한 혼인식 중에 각 테이블 마다 다니며 하나 하나의 촛불이 모여 둘이 아인 하나의 촛불이 되는 것처럼 하나 됨으로 모두를 밝히는 삶을 살겠다는 의미로 각 테이블에 촛불을 붙이며 인사를 다녔다.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라는 순서를 통해 둘의 삶에 있어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소중한 한분 한분에 대해 기쁜 마음으로 때론 눈물을 흘리며 진심을 담아 얘기 했다. 사위는 나에게 다가와 “외로워 마세요. 이제 아들이 생겼습니다.”라며 얼굴에 웃음꽃을 피운다. 그리고는 이정덕 교수를 등에 업고 기쁨을 하객들과 나누었다. 딸 역시 시어머니에게 “이제 딸이 생겼습니다.” 라며 미소를 가득 보내 드린다. 양가 가족이 함께 <즐거운 우리집>, <고향의 봄>을 마음을 담아 합창으로 축하해주었다. 이어 신랑과 신부가 노래로 화답했다. 마지막 순서로 하객 모든 분들이 함께 즐거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로 <사랑으로>를 부르며 축제를 마쳤다. 혼인예식은 2시간가량 축제의 마당으로 진행되었다.

나가며

아름다운 혼례문화를 위한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에 대해 강윤구 원장은 사회지도층이 앞장서서 검소한 혼례문화를 몸소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의례의 실천을 통한 생활개혁

이 폭 넓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며, 송 복 교수는 혼인식에 허례허식을 개선하는데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문화와 지식과 비전을 창조하는 지식층에서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평일 교장은 가정에서는 부모가 모범을 보여줘야 하고 사회에서는 사회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소개한 사회지도층의 아름다운 혼인사례는 현대사회의 혼례문화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먼저 실천해줄 것을 기대하거나 요구한 것이 아니라 먼저 실천에 옮겼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시대공감형 혼례문화 만들기

토 론 문



전통 혼례속의 건전한 혼례문화

이혜자 (성균관여성유도회 중앙회 전회장)

관혼상제(冠婚喪祭) 중 혼례는 인륜지대사의 첫발을 내딛는 첫 단계이면서 단 한번 치러진다는 희귀성의 비중과 예비사돈에 대한 예의와 신분사회의 체면치레라는 명분으로 실행되던 혼례나 상례 부분은 신분과 재력, 또는 상업성에 따라 호화혼례와 과소비 상장례로 인한 논의는 과거부터 끈임 없이 이어져 왔다.

조희선 교수님의 “우리의 혼례문화 정착을 위한 소고”에서는 혼례의 절차와 이러한 호화 혼례문화의 변천과 제도권의 제재, 바람직한 혼례문화의 정책에 대한 대안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하여 주셨다. 그러나 토론자로서 혼례문화 현실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제언 부분을 전통 혼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1. 전통혼례의 전승부분

우리의 가정의례인 관혼상제는 중국의 예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중국 주(周, BC 1046~BC 256)나라의 혼례 풍습인 육례(納采, 問名, 納吉, 納徵, 請期, 親迎)를 송대(960~1279) 주자(朱子, 1130~1200)의 사례(議昏, 納采, 納幣, 親迎)로 정리하였고, 조선시대 주자학이 국가 정교(政敎)의 기본강령으로 확립되면서 『주자가례』 준행이 강요되고, 처음에는 조정 중신에서부터 사대부의 집안으로, 다시 일반서민에까지 보편화 되었다. 그러나 혼례만은 신랑이 신부를 데려다 신랑집에서 혼인을 치르는 중국의 예서(禮書)에 의한 친영례는 따르지 않았으며, 대부분 전통 육례혼속인 중매, 납채(納采, 사주보내기), 택일인 연길(涓吉, 날받이), 함보내기인 납폐(納幣), 대례(大禮), 우귀(于歸, 현구고례)로 친영례가 아닌 신부집에서 혼인식을 치르는 의식을 따르고 있다.

조정(朝廷)의 가례(嘉禮)인 왕세자빈례(王世子嬪禮)의 절차는 納采, 納徵, 告期, 冊嬪, 臨軒

醮戒(宗事계승), 親迎(奉迎, 사자를 보내 신부를 맞아들임), 동뢰(同牢, 교배례, 술잔을 주고 받는 의식), 빈조견(嬪朝見, 왕과 왕비 뵙기)으로 국혼에서는 친영례가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제시대 의례준칙에서도 혼례절차는 約婚, 涓吉, 納幣, 醮禮로 친영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근세까지도 일반적으로 신부집에서 혼인을 치른 후에 몇 일 또는 몇 달을 묵고 가거나(달묵이), 몇 해를 머물른 후에 시댁으로 돌아가는(해묵이)제도를 따르고 있었다. 예서에 의한 친영례가 지켜지지 않자 명종조(1545년 ~ 1567)는 국가에서 반친영 제도인 1~3일내 시댁으로 돌아오는 제도를 계몽하고 있다. 이렇게 신랑집이 아닌 신부집에서 치러지는 혼례풍습은 고구려시대부터 전해오던 데릴사위제도(壻婦婚俗)¹⁾ 유습의 전래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혼례는 중국 예서의 의식이 아닌 전통 관습을 따르는 특징이 있었다. 이 중에서 오늘날 남아 있는 의식은 일반적으로 사주를 보내는 납채, 여자집에서 날을 받아 보내는 택일(涓吉), 함속에 예물과 예단을 보내는 납폐(納幣)와 폐백을 올리는 현구고례(見舅姑禮)로 구분할 수 있다.

오늘날 호화혼수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표적으로 예단과 예물, 예식비용, 주택과 주거 준비비용, 신혼여행 경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전통혼례 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 납채, 납폐, 현구고례 등의 절차를 통해 건전한 혼례문화의 풍속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전통 속의 건전한 혼례문화

1) 시주와 함 보내기

사주를 보내는 납폐와 함속에 예물과 예단, 혼서지를 보내는 납채에 대해 알아본다.

각기 다른 異性이 만나는 혼인의 의의를 『小學』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혼인의 예라는 것은 자손만대의 시초이다. 배우자를 자기와 다른 성을 얻는 까닭은 소원한 사람을 가까이 붙여서, 분별의 뜻을 온후하고 진중하게 함이고, 예물은 반드시 정성스럽게 한다.” 라고 하여 성이 다른 남남이 만나 혼인식을 치를 때는 예물을 주고받되 정성을 우선으로 꼽고 있다.

또한 성이 같은 근친혼의 불혼은 고조선부터 등장하는데 『大東史綱』<箕氏朝鮮條>에 전해지는 팔조법규의 하나로서 동성은 불취하도록 엄하게 금지하고 있다. 『삼국지』<魏書, 東

1) 『三國志』위서에 전하는 고구려의 관습으로 男女 양가에서 혼인을 약정한 후에 여가에 서옥이라 부르는 小屋을 짓고 신랑이 찾아와 동숙할 것을 재삼 청하는 데릴사위 제도에서부터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다. 高麗시대에도 “나라에 풍속이 있어 어린소년을 집에 데려다 길러 혼인할 연령에 다다른 사위로 삼는다.”고 전하는 것 같이 어린 남자를 데려와 성장시킨 뒤에 혼인 시키는 壻婦婚俗의 데릴사위제도가 고려 때까지 실시되고 있다.

夷前>에서도 “동성간의 불혼은 사망과 질병을 꺼리기 때문이다.(同姓不婚多忌諸疾病死亡)”라고 하여 이러한 동성불혼의 규정이 고려말까지는 관습적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고려말부터는 근친불혼의 법제가 성립되고 조선시대의 『經國大典』<續大典>에는 “향실이 다르다 하여도 성자가 동일하면 혼인할 수 없다”²⁾는 동성불혼의 법규로 발전하게 된다.

이와 같이 배우자를 동성이 아닌 타성을 선택하였고, 이에 따른 더 많은 禮라는 규범과 예물을 필수적으로 주고받고 있다. 그러나 전통혼인은 물건보다는 정성이 우선하는 정신적 가치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1) 납채 속 예물

사주함 속에 넣는 물건을 사례조사와 문헌을 통해 살펴보면 사주서식, 싸리가지, 청홍실과 청홍보, 편지, 사주함일 때는 분홍색 저고리 1감이나, 분홍색 옷 한 벌 등이 사용되었다. 분홍색저고리 또는 옷은 함을 받을 때 입었다고 한다.

2) 납폐(함) 속 예단과 예물

함에 전달되는 과다한 혼수품은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중종조에 실시된 <혼인할 때 사치를 금단하는 규정에서는> 왕가부터 서민이 지켜야 할 납채와 납폐의 예물은 “왕녀가 하가(下嫁)할 적에는 납채와 납폐 때에 찬품이 3가지 과를 넘지 않으며 납폐는 명주 또는 베로 하되 청색(玄) 3감과 홍(纁) 2감으로 하고, 종친과 문무관 1품 이하는 납채와 납폐 때에 찬품이 2가지 과를 넘지 않고, 납폐는 명주 혹은 베로 하는데 2품 이상은 청 3감과 홍 2감으로 3품 이하 서민까지는 청홍 각 1감으로 한다.”³⁾ 와 같이 함 속의 예단은 청홍 채단 각 1감이며, 혼수품의 사치를 금하는 규정이 범국가적 법 규정으로 나타나는데 왕조실록의 상소문과 오늘날 가정의례 준칙의 문항을 통해 규정들을 살펴본다.

역대 왕조실록의 상소문에는 “당하관으로서 혼인 때에 사라능단(紗羅綾緞)과 계담(담요)을 사용한 자는 장팔십에 처한다.”고 하였다. 함 속의 과다한 예물이 오고가는 것에 대해 문중자(文仲子)는 “혼취를 하면서 재산을 논하면 오랑캐의 道라고하였다. 혼수의 후박(厚薄)을 묻고 재물의 다소로 장가간다면 또한 속이고 약속을 어기는 자 있어 이에 거간장이가 팔고 사는 법이 되니 어찌 사대부라 할 수 있겠는가.”⁴⁾ 라고 재물을 논하는 것을 장사나 오랑캐의 道로 규제하고 있다.

2) 『續大典』前揭書, 卷3, 禮典, 婚嫁條.

3) 『중종실록』 권97.

4) 신의철, 『常禮要覽』, 보경문화사, 1980, p4.

또한 사라능단과 금은주옥 등 사치스러운 물건을 당상관의 자녀를 막론하고 일체 금하되 위반하는 자는 그 가장을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⁵⁾로 논한다.”며 사치품의 금지를 법규조항과 채별로써 엄격히 규정하고 있었다.

1985. 3. 30일 대통령령으로 발표된 가정의례 준칙 혼례 제 6조에 의한 규정에는 함보내기 자체가 삭제되어 있다.

“혼인에 있어 ‘함잡이’를 보내는 행사는 하지 않는다.”고하였고, 1999. 08. 31. 대통령령으로 발표된 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는 “혼인에 있어서 혼수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예단을 증여할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부모에 한정한다.”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함보내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 종목별 제시 없이 함보내기 자체를 규제하는데 문제가 있었으며 예단이 더욱더 과소비, 사치화 하는 계기가 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정의례준칙과 같이 규정을 정할 때는 현실이 반영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주와 함보내기 등의 조항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1) 함속 물품

함 속에는 혼인 서약서인 혼서지와 동심결한 청홍채단⁶⁾인 치마감 각 1감씩을 넣었으나 오늘날은 다홍치마에 녹색저고리(관대벗김)를 만들어 동심결하여 넣을 수 있다.

이밖에 함 속에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복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가지 희망과 정성을 나타내는 상징적 물품으로 잡귀를 물리치기 위한 붉은색 팔, 다남, 다복, 부귀영화, 일부종사 또는 풍년들기의 바램에서 목화씨, 콩, 조, 찹쌀 등(중부지방)의 곡식과 가사도일습(경남지역) 등을 함 바닥에 넣기도 한다.

예물로는 구리에 은도금, 은, 금, 호박 등의 가락지 1쌍을 기본으로 준비하였다. 삼국시대 후 거울이 혼약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기타 4계절 옷감과 예물이 있다면 물목에 적어 보냈다. 함속에는 검은보에 쓴 혼서지, 청홍채단, 가락지 1쌍정도, 부귀다남의 상징적 물건, 물목 이외는 일체 넣지 않았다. 함을 붉은 겹보에 싸고 함끈으로 무명1필을 접어 복이 많은 함집아비가 지고 갔다던 풍습에는 호화 혼수를 찾을 수 없었다.

5) 임금의 교지(敎旨)와 세자(世子)의 영지(令旨)를 위반한 자를 다스리는 율. 『대명률(大明律)』 이율(吏律) 제서유위조(制書有違條)에 의하면 위반한 사람은 장 1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청홍채단인 홍단은 청종이로 써서 홍실로 동심결 한 후에 근봉하고 청단은 홍종이로 싸고 청실로 묶어 근봉한다.

3. 이바지와 폐백음식

예서에 의한 폐백음식은 다음과 같다.

문헌 근거	현구고례 음식내용
朱子家禮	밤, 대추, 단수를 준비한다.
四禮便覽	시아버지 笄(폐백상자)에 담은 대추, 밤과 시어머니는 변에 담은 暇(단수, 육포)갓고 간다.
嘉禮酌儀	대추, 밤과 말린 꿩(鴈)이나 이것을 마련하지 못하면 수(鱸, 어포)를 쓴다. 이와 같이 대추, 밤, 포를 쓴다.
成均館	시아버지에게 밤, 대추 시어머니에게 단수(육포)를 올렸으나, 꿩이나 닭도 쓴다.
韓國의 冠婚喪祭	밤, 대추, 육포, 닭과 술을 준비한다. ⁷⁾

어머니를 위한 육포가 북쪽(함경도 평안도)에서는 육회가, 경기도 서울은 접산적이, 남쪽은 육포로 기후에 따라 달랐으며, 서민은 꿩이나, 계란지단, 당근, 석이버섯 등 오색으로 장식한 닭이나 오징어, 색종이로 오려 장식 한 닭(충청도, 전라도) 등을 쓰고 있다.

오늘날 폐백 음식은 시아버지에게 밤·대추 시어머니에게 육포를, 여러 가족을 위한 술안주로 구절판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전통 혼례날 신부집에서는 신랑에게 우귀 후 신부에게 큰상을 차려주는데, 이 큰상은 송복의 의미로 신랑과 신부집으로 보내던 것이 이바지 음식이며 양가에서는 이 음식으로 잔치를 치렀다. 이렇게 신랑신부 앞에 차려진 큰상의 음식을 보내는 것을 이바지⁸⁾, 봉송(奉送), 차반(茶飯) 상수(床需)라 하며, 손님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음식을 싸서 보내는 반기(頒器) 또는 ‘봉송’의 풍습이 있었다. 이러한 음식이 현재는 예식장에서 치러지므로 이바지 음식은 상호 준비하지 않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결어 및 제언

전통혼례 중 현재 남아 있는 의례부분에 대한 제언과 대책방법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전통혼례는 중국예서에 의한 신랑이 신부를 데려다 혼례를 치르는 친영례가 아닌 신부집에서 혼인은 치르는 전통의 혼속을 따르고 있다.

둘째, 혼례에서는 중매인이 없으면 혼인을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혼인이 결정되면, 두

7) 장철수, 『한국의 관혼상제』, 집문당, 1997, p.142.

8) 이바지는 ‘이받디’로 ‘잔치’ 또는 ‘연회’라는 뜻을 가진 옛말 ‘이받다’에서 유래되었다.

성씨 간에 예로써 예물은 보내되 정성을 우선으로 하였다.

오늘날 혼인을 거부하거나 정년기를 노친 독신 남녀가 많은 데는 경제적 자립을 못한 원인과, 취업준비나 학업으로 만혼에 다다른 경우도 있으나, 남녀간에 건전한 만남의 기회가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집안이나 이웃이 책임을 갖고 중매에 앞장섰으며, 『經國大典』에서는 “남자 나이 20세 여자 나이 15세가 되면 혼인하고 30세가 넘어도 장가가지 않을 때는 관가에 고하도록” 국가에서도 관리하였다. 이제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 만연된 성범죄 등을 일부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도 법조계나 보건복지부 산하의 제도권에서 ‘이혼상담’의 비중만큼 ‘혼인 상담’ 또는 ‘건전한 중매’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직접 관리하거나 또는 구청 동 단위의 지자체나 마을회관, 여성단체, 동아리 활동의 등의 지원을 통해 간접적이라도 관리하여야 할 때라고 본다.

셋째, 혼인이 채택됨을 알리는 사주는 오늘날은 대부분 약혼식의 예물함속에 전해지고 있으나, 약혼식도 생략되는 추세여서 납폐함이 갈 때 예물함속에 보내지거나, 생략되는 경우 등이 있다.

혼인날이 정해지면 양가가 간소한 예물을 보낼 때 함께 신랑이 사주단자를 신부가 택일 단자를 양가로 보내거나 또는 양가가족이 간소한 자리를 마련하여 보내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넷째, 함속 예단과 예물은 첫째는 혼인서약서인 혼서지와 신부가 혼례날 입는 청홍치마(오늘날은 관례 베갯 용 홍치마 녹색저고리), 음양의 혼약 징표인 가락지 1쌍, 계절별 옷감 2~3벌 정도를 보내었다. 가장 검소한 예단과 예물을 보내는 방법은 이러한 전통을 따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4. 함 보내기에 대한 1995년도의 한 설문조사에서는 “함을 지고 갈 때 인원은 5~7인이, 함 값은 30~50만원 사이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로는 50~100만원(44.5%)이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도 12%로 나타나 함 값의 과중한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⁹⁾ 함을 파는 풍습은 요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해지거나 신랑이 직접 가지고 가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함이 들어 갈 때 바가지를 깨는 풍습은 지양될 부분으로 사려 된다. 혼례 때 근배례로 쓴 바가지는 부부가 한쪽이 사망했을 때 인연이 끝난 징표로 관이 방문이나 대문을 나갈 때 바가지를 깨고나가며, 우리나라 풍습에서는 경사날에 접시 하나라도 깨지거나 금이가면 불길하다 하여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물건을 다루는 미풍양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섯째, 폐백음식은 시아버지에게는 대추(陽의 과일, 아들상징)와 밤(陰의 과일, 딸상징)을, 시어머니에게는 육포, 나머지 가족을 위한 술안주로 구절판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

9) 이해자, 『한국여성교양학회지』 2집, 『사주와 함의 모형 연구』, 1995.

다. 이러한 폐백 음식은 준비가 번거롭지 않고 조리방법이 간단하여 직접 만들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폐백례는 시어버니 시어머니를 뵙는 현구고례(見舅姑禮)지만, 과거 혼인식을 신부집에서 치른 다음날 신랑은 장인장모 또는 옷 어른들께 첫 인사를 올리는 서현부지존장례(胥見婦之尊長禮) 절차가 있었으므로 오늘날 장인 장모도 폐백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다.

일곱째, 이바지 음식이 과거에는 신부집의 혼례날은 신랑집으로, 우귀 때는 신부집으로 보내진 음식이 잔치음식이 되었다. 예식장 혼례인 오늘날은 이바지 음식은 필요치 않으므로 생략되어야 부분이라고 본다. 단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시댁이나 친정을 방문할 때 떡, 과일, 다과 등을 간소하게 보내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 전통혼례 부분에서 현재 실행되는 사주와 예단함보내기, 폐백 등에 대한 호화 혼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전통 혼례 속 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5. 호화 혼수에 대한 대책

호화 혼수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은 제언으로 대체해 보고자 한다.


첫째, 올바른 혼례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혼례의 절차를 통해 건전한 가정의 설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예단과 예물의 가격보다는 정성을 다하는 혼례의 의미를 알리는 교육과 함께 혼서보 만들기, 예단포장과 동심결 맺기, 함싸기 등을 교육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인생설계에 대한 경제문제, 태교, 부부간 고부간의 예절 등의 예비부모, 예비부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폐백음식 만들기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폐백의 경비를 1/10줄일 수 있다.

둘째 올바른 혼례문화에 대한 교육과 함께 홍보책자를 발간하거나, ‘혼인상담소’, 또는 ‘혼인중매’에 대한 제도권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가정의례준칙과 같이 구체적인 제안이 없는 준칙들은 무용지물처럼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관혼상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적용된 준칙을 제정하여 홍보할 수 있는 대안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사회 과비용 예식구조에 대한 변화

이광렬 (그린웨딩 포럼 대표)

1. 과비용 구조의 원인

1) 소비자 비용선택 제한

- 상업적 예식장

피로연 수익 중심의 운영구조(시간대별 메뉴선택 불가)

하객수가 적으면 원하는 시간대 선택 어려움(다문화 가정, 경제적 소외계층, 재혼커플 등)

그 외 꽃길 등 옵션으로 비용 상승 불가피

- 웨딩컨설팅 업체

스.드.메 포함 250만원~300만원 수준의 패키지 상품 구매를 전제로 소비자에게 예식홀 정보 제공

2) 과시문화

- 부모 중심의 혼례준비

-> 축의금 회수, 부의과시, 체면등 물질주의 혼례준비에 따른 비용과다 재생산

- 평생 한번이라는 예식 당사자의 최면의식

2. 과비용 혼례문화의 이면

1) 예식비용 부채

- 신혼가정에서부터 예식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채 부담
- 결혼식을 올리는 1/5이 결혼으로 인한 가계 빚(평균 2,200만원)을 안음

2) 예식비용 부담

사실혼 관계이나 예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

-> 전국기준 4.5% (연간 1만 5천여쌍)

서울시의 경우 매년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고 있는 가정이 1개 구(區)당 130여 가구

3. 혼례와 출산율(혼례연령 · 출산율 변화추이)

연 도	혼례 연령(초혼기준)		출산율	
1990년	남 27.8세 여 24.8세		1.57	
2000년	남 29.3세 여 26.5세	(+) 1.6세	1.47	(-) 0.10
2010년	남 31.8세 여 28.9세	(+) 2.5세	1.22	(-) 0.25

1) 초혼 연령

2005년도 미혼남성 중 결혼의향이 있는 비율이 82.5% 였던 것이 2009년도 조사결과 75.7%로 감소

여성의 경우 또한 73.8%에서 73.1%로 결혼의 필요성이 시간이 경과 할수록 더 약화

2) 혼례와 출산율의 상관관계

결혼 연령이 1세가 높아지면 출산율이 0. 1% 하락

결혼지원과 관련된 출산정책의 중요성

4. 사회적 지원

1) 예식공간 인프라 제공

- (공)기업, 지자체 및 정부의 강당시설등 사회적 공간 인프라제공 중요(이용률 5.2%)
-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10.5%→ 실비수준의 전통혼례 전용관 필요
- 시설공간을 제공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 지원 검토
(2003년/한국전통혼례센터)

2)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예식비용 지원

5. 생활공감 saving 웨딩(여성가족부)

- 공공기관 예식홀 무료 제공(서울시 인재개발원, 양재시민의 숲, 마포구청 성북구청등)
- 하이브리드 웨딩카 무료 이용(1박 2일)
- 드레스, 턱시도, 메이크업, 헤어 30만원에 제공
- 사회 지도층 인사 릴레이 주례 기부

※ **그린웨딩** 예식 1건당 CO2 4,397kg 발생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국립산림과학원, 자원순환연대

- 청첩장
자연이 힘들어 하지 않는 콩기름으로 인쇄된 재생용지 청첩장이나 손수건청첩장 사용
- 예물
오래되고 손가락이 맞지 않아 착용하지 않는 부모님 반지와 결혼 전 커플링을 리디자인(redesign)하여 예물반지로 활용
- 드레스
천연한지나 옥수수섬유 드레스는 결혼식 후 일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의상

- 부케/부토니아

뿌리가 삭독 잘려나간 부케와 부토니아 대신 이날을 기념하여 키울 수 있는 뿌리가 살아있는 꽃을 사용

- 꽃길

한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 생화꽃길 대신 다양한 종류의 화분꽃길을 장식하고 예식 후 참가하객에게 선물로 나누어 줌

- 결혼식 앨범

집들이 날 외 이사 때 마다 짐스러운 종이앨범 대신 DVD, USB 파일로 보관 앨범제작으로 인해 베어져 나가는 나무를 살리고 앨범비용도 50% 정도 절감

※ 매년 30만쌍의 결혼식에 사용되는 청첩장제작만으로 1,800톤의 종이사용(원목 3만 그루)

- 피로연

예식 시간대에 따라 간소한 뷔페, 국수 다과등 다양한 메뉴를 통한 비용 절감

- 신혼여행

여행 현지에 도움이 되고 탄소발생을 줄이는 에코 허니문여행 유도

- 숲가꾸기

결혼식에서 발생된 CO2해소를 위해 나무를 기부하고 앞으로 자라날 아이와 함께 숲을 가꾸어 감



생활공감 혼례문화 확산 정책방향

윤효식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

□ 추진목적

- 호텔결혼식 등 고비용 왜곡된 혼례문화에 대한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민관이 협력을 통해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국민 인식개선 추진

□ 추진배경

- 호화결혼 문화 사회적 이슈 제기
 - ※ ‘거품많이 낀 결혼문화’ 매일경제 집중보도(9.28)
 - 서울특급호텔 결혼식의 경우 제일 값싼 식사 양가 300명 견적 1~4억
 - 주거비를 제외하고 신랑 평균 8000만원, 신부 3000만원
 - 예단비 10억원 보냈다 5개월도 안 돼 이혼소송
- 국무총리실에서 선정한 건강한 사회 만들기 과제중 ‘관혼상제 허례허식 줄이기’ 선정

□ 그 간의 추진경과

- ‘생활공감 관혼상제 추진계획’ 수립 (6.10)
- ‘생활공감 관혼상제 실천 협의회’ 발족 (7.13)
- ‘아름다운 혼례문화 정착을 위한 100인 선언식’ 개최 (10.13)
- ‘시대공감형 혼례문화 조성방안’ 토론회 개최 (10.21)

□ 추진 성과

- 관계부처,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통한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추진계획’ 수립·보고 (국가정책조정회의)
 - 정책수립에 앞서 국민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관혼상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실시 (성인 1,000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관혼상제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 : 혼례 56.1%, 제례 23.5%, 상례 12.1%
 - * 관혼상제 비용이 부담된다 : 결혼 59.6%
 - * 가이드 북(라인) 제공 찬성 : 혼례 57.7%
 -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TF 운영을 통한 정책방향 및 과제 발굴 (3회) (행안부·권익위, 관련 교수 3명, 시민 사회단체 2명 등)
-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각계각층의 관혼상제에 대한 의견수렴·정책자문을 위해 정부, 시민 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실천 협의체’ 구성
 - * 관계부처, 민간단체 5, 예절교육기관 1, 관련 교수 3 등
- 검소하고 건전한 혼례문화의 확산 계기를 마련하기 사회원로, 시민 사회단체, 연예인 등이 함께하는 100인 선언식 개최
 - 민간단체가 주도적 역할과 정부의 지원을 통해 민관 협력행사 추진
 - * 생활공감 관혼상제 실천협의회·생활개혁실천협의회 공동개최, 여성가족부 후원
 - 모범적인 혼인예식을 치른 사회지도층, 연예인의 사례발표를 통해 사회적 관심과 공감 유도
 - 방송사와 공동 기획을 통해 100인 선언식과 저렴하고 품위 있는 혼례사례 소개, 관계자 인터뷰 등 방송 (10.14)
- 현대의 혼례문화의 바람직한 조성 방향과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시대공감형 혼례문화 조성 토론회’ 개최
 - 한국혼례 산업의 현황과 과제, 우리시대의 혼례문화 고찰과 개선방향, 사회지도층의 혼수문화 사례발표 등 발제와 토론
 -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은 '12년 건전 혼례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

□ 향후 추진방향

- 생활공감 Saving 예식모델 개발·시연 ('11. 11월 ~'12. 연중)
 - 대 상 : 검소하고 품위있는 혼인예식 희망자 (저렴한 혼례문화 확산운동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연계)
 - 장 소 : 공공시설 이용 (지자체, 공기업 등 시설활용)
 - 예식구성 : 결혼 의복·메이크업·꽃길 등 지원, 예식홀 무료사용, 웨딩카 지원, 주례기부 등
 - 협력체계 : 여성가족부, 관련 시민단체, 서울시 등 및 공공시설

【참고 1 : 2012년 사업방향】

○ 감소한 혼례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인식개선 홍보

- 모범적인 혼인예식 사례 수기공모 (방송매체와 공동추진)
- 언론·방송사 등과 호화혼례 추방과 건전혼례문화 확산 공동캠페인(기획기사, 취재·보도, 릴레이 기고 등)
- 방송작가와 간담회, 홍보 리플렛 및 포스터 등 제작·보급

○ 민관협력을 통한 건전한 혼례문화 확산 캠페인

- 민관 합동 토론회·세미나 등 개최, 결혼시즌 등 계기를 활용하여 혼례문화 개선 공공캠페인 추진

○ 감소하고 품격있는 혼례예식 모형 개발·보급

- (주요내용) 사회지도층 릴레이 무료주례 기부, 공공시설 등을 무료예식장으로 활용, 의복·꽃장식·메이크업 등 예식연출 비용을 최소화하여 제공
- (협력체계) 여성가족부(총괄), 관련 시민단체(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자체 및 공공시설 관계자(시설제공) 등
- (추진절차) 위탁기관 공모·선정, 예비부부 신청·접수, 개발한 혼례모형에 따라 혼인예식 실시

【참고 2 : 주요 언론보도 자료】

① “관혼상제 중 혼례문화 개선 가장 필요”(서울신문 6. 11)

여성가족부는 10일 '21세기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추진계획'을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이자리에서는 지난달 전국의 생활체감정책단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도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1%가 관혼상제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혼례'를 꼽았다. '제례'와 '상례'를 꼽은 응답자는 각각 23.5%, 12.1%였다. 혼례문화의 문제점으로는 '과다한 혼수'(56.1%)였고 '뜰에 박힌 결혼식'(15.2%), '주택마련 부담'(14.4%) 순이었다.

결혼식 축의금 관행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7%가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답했고,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야 한다'(10.6%)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4.9%)는 의견도 있었다. 제례문화에 대해서는 긍정·부정적 의견이 엇비슷했다. 장례문화에서는 '장례 서비스 업자의 횡포'(38.9%)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추진계획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자녀 등의 호화 결혼식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장차관,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판검사 등이 자율적으로 나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국무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건전 관혼상제를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황수정·유지혜기자 sjh@seoul.co.kr

② 생활공감 관혼상제 실천 협의회' 13일 출범(뉴시스 7. 13)



【서울=뉴시스】강수운 기자 = 검소하고 실용적인 관혼상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민관 합동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실천협의회’가 13일 출범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후 3시 여성가족부 13층 대회의실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생활공감 관혼상제 실천 협의회’ 출범식을 연다.

협의회는 지난달 10일 제8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추진 계획’에 따라 검소하고 실용적인 관혼상제 문화 확산에 구심점 역할을 담당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예지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 관혼상제 관련 전공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건전한 관혼상제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방향과 추진계획 심의·조정, 국민인식 개선 운동, 관련 세미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③ 아름다운 혼례문화 정착을 위한 100인 선언식 (연합뉴스, 10. 13)

(3-1) 서명자 기념촬영



(서울=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여성가족부 주최로 열린 ‘아름다운 혼례 문화 확산을 위한 100인 선언식’에서 김금래 장관이 선언식에 참여한 인사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아래 왼쪽 다섯번째 김금래 장관, 대한주부클럽 김천주 회장, 김현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 배우자)님, 개그맨 김원효 심진화 부부, 크리스티나 김현준 부부 순.

(3-2) 개그맨 사례발표 (김원효·심진화) 사례발표 (연합뉴스 10.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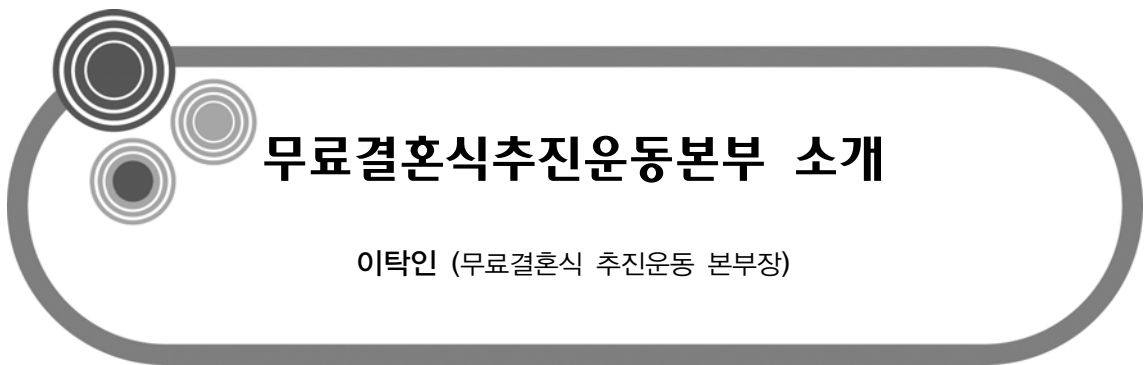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아름다운 혼례문화 정착을 위한 100인 선언식’에서 김원효·심진화 부부가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

(3-3) 방송인(크리스티나·김현준) 사례발표 (뉴시스 10. 13)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아름다운 혼례문화 정착을 위한 100인 선언식에서 방송인 크리스티나 콘팔로니에리와 김현중 부부가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



무료결혼식추진운동본부 소개

이택인 (무료결혼식 추진운동 본부장)

설립목적

무료결혼식추진운동본부는 근검, 절약 알뜰한 결혼을 추진한다는 모토로 발족된 시민단입니다.

우리나라의 결혼비용 지출은 서양에 비해 7-10배 정도의 고비용이고, 동양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3-5배 정도는 많이 지출되는 과소비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과소비 결혼문화 형태의 극복을 위해 국민 의식개혁 대응 시민운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무료결혼식추진운동본부는 발족되었고, 무료결혼식추진운동본부는 정부, 기업,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검소한 혼례문화를 정착시켜 나아가고 있으며, 새출발하는 신혼가정의 튼튼한 도약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 방침

1. 고비용 과소비 결혼문화 개혁 및 저비용 검소한 결혼문화 전환운동
2. 튼튼한 가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
3. 근검절약 합리적인 혼수문화 실천 범국민운동

중점 사업 내용

- 무료결혼 주관

무료결혼식추진운동본부 회원 가입비만으로 본식에서 입을 드레스, 턱시도를 대여해주며, 메이크업, 본식앨범을 제공하고 부가 서비스로 결혼택일, 일대일 맞춤상담, 일정관리 역시 무료로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렴하면서도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제공받고 합동결혼 방식이 아닌 일반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곳,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개별적으로 결혼준비가 가능합니다.

또한 거품이 없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품격의 의미 있는 결혼식을 주관, 장기적으로 웨딩 시장은 물론 개개인의 의식에 변화를 주어 거품이 없는 웨딩 시장 정착에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각 웨딩 관련 업체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

관공서, 언론사, 공공기관, 사회단체 그리고 각 웨딩 관련 업체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략적 협약을 통해 결혼문화를 주도하는 데 그 일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 거품이 없는 결혼 문화를 정착

새 출발하는 가정에 경제적 안정과 생활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어 사회적 안정과 개인의 행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

결혼식 진행에 필요한 사진 아티스트, 비디오 아티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웨딩 플래너, 스케줄 플래너, 웨딩매니저 등을 양성하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나아갈 길

- 설립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시민단체로서의 그 역할과 본분을 다하는 데 있습니다.

-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알뜰 결혼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그 일임을 다 합니다.

- 뜻을 함께하는 여러 단체와 관련 업체를 계속 발굴하여 소비자와 연계하는 데 더욱 힘을 쓰고 전국 네트워크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 궁극적으로 거품이 없는 웨딩문화를 정착하여 새 출발하는 가정에 경제적인 안정 제공, 나아가 사회적 안정과 개인의 행복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혼례/혼수’에 대한 생활체감정책단 온라인 패널 조사 결과 보고

김양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조사 배경 및 목적

- 관혼상제에 관한 정부정책은 과소비 방지와 미풍양속의 순화·유지를 위해 규제강화→규제완화→해지→규제탈피 등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왔으나 정책적 관점이 비용절감, 절차 간소화 등 외형적인 것에 맞추어져 온 바에 비하여 여전히 체면과 과시욕, 부담스러운 경조관행, 지도층의 호화 결혼 및 장례식 등 정책적 효과는 국민에게 내재화되지 못함
- 이에 여성가족부는 관혼상제의 본래의 의미와 가치 회복을 통해 건전한 관혼상제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이를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 본원이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감정책단을 대상으로 시대에 맞는 관혼상제에 대한 온라인 의견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4%가 ‘과시적인 부분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관혼상제 중 가장 많은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혼례’로 응답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생활체감단 대상으로 혼수 중심으로 혼례문화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 조사결과에 근거해 시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혼례문화를 만들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고자함

2. 조사 설계

구분	세부 조사 설계
(1) 조사 대상	• 생활체감정책단 패널
(2) 조사 지역	• 16개 광역 시도
(3) 유효 표본	• 생활체감정책단 패널 1,000명
(4)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웹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E-mail 조사
(5) 자료 처리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된 자료는 코딩, 편칭, 에디팅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로 전산처리함 • 분석은 각 항목별로 빈도분석, 교차분석 실시
(6) 조사 기간	• 2011. 10. 10 ~ 2011. 10. 14 (5일간)

3. 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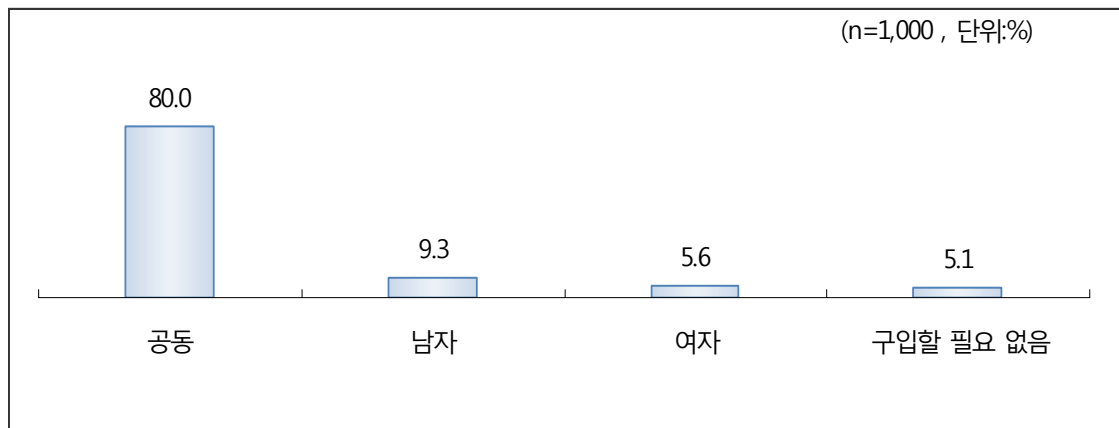
주요 항목	조사 내용
혼수 관련(8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수 장만 시 주 구입자에 대한 인식 • 혼수로 인한 갈등 여부 및 갈등 이유 • 혼수에 대한 필요성 여부 • 혼수를 받는 범위 • 혼수로 인한 부담감 정도 • 혼수 준비 과정에서 가장 부담되는 것 • 결혼기피에 대한 혼수부담의 영향
혼례 관련(3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혼인예식에 대한 인식 • 일반적인 혼인예식 변화의 방향 • 혼인에 대한 의미

4. 조사 대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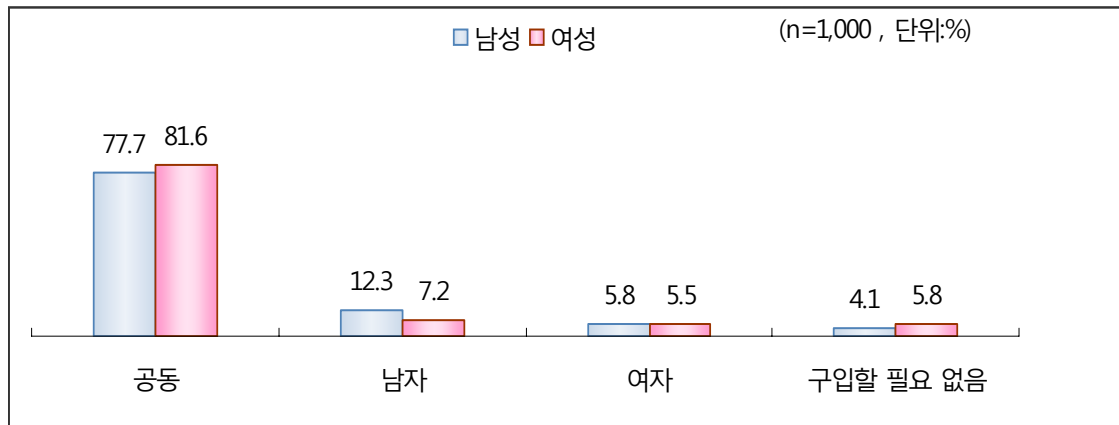
		사례수	비율(%)
전체		1,000명	100.0%
성별	남성	(413)	41.3%
	여성	(587)	58.7%
연령	20대	(195)	19.5%
	30대	(276)	27.6%
	40대	(283)	28.3%
	50대이상	(246)	24.6%
혼인 여부	기혼-20/30대	(211)	29.1%
	기혼-40대	(268)	37.0%
	기혼-50대 이상	(245)	33.8%
	미혼-20대	(168)	60.9%
	미혼-30대	(92)	33.3%
	미혼-40/50대	(16)	5.8%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37)	23.7%
	300~399만원 이하	(193)	19.3%
	400~499만원 이하	(207)	20.7%
	500~699만원 이하	(218)	21.8%
	700만원 이상	(145)	14.5%
직업	자영업	(87)	8.7%
	전문직/관리직	(167)	16.7%
	사무직	(338)	33.8%
	판매/서비스직/생산직	(87)	8.7%
	가정주부	(209)	20.9%
	학생	(64)	6.4%
	무직	(23)	2.3%
	기타	(25)	2.5%

1-1. 예식관련-(드레스/턱시도우/메이크업/사진)의 구입자는?

- 예식과 관련된 혼수 준비에서 드레스/턱시도우/메이크업/사진은 ‘공동(80.0%)’으로 장만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모든 연령대에서 ‘공동’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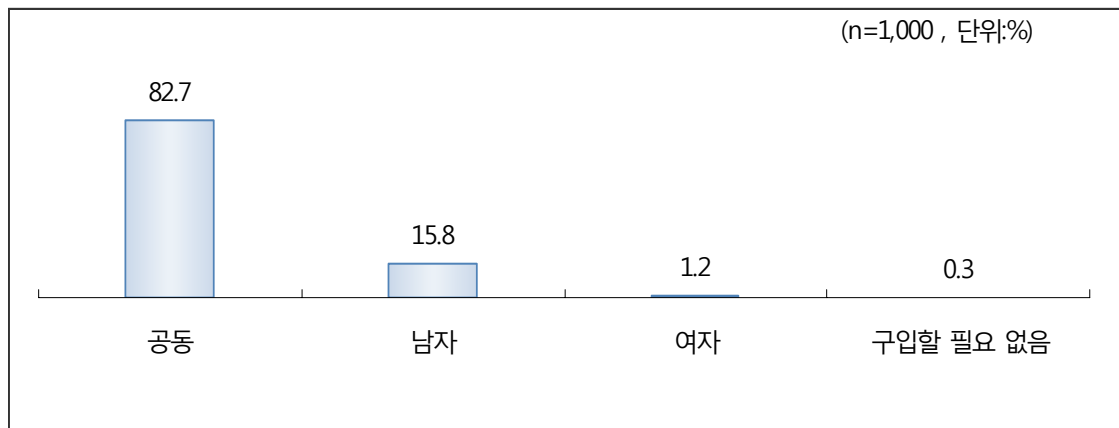
〈그림 1-1a〉 드레스/턱시도우/메이크업/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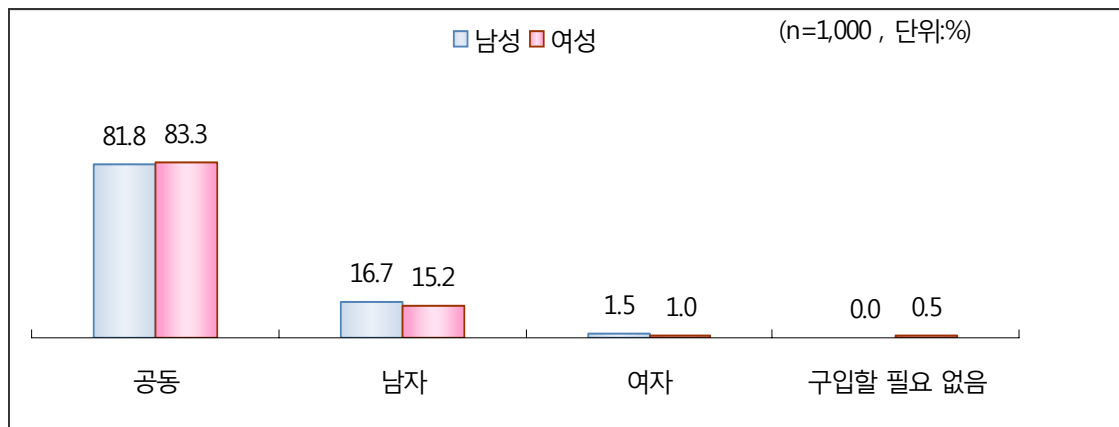
〈그림 1-1b〉 드레스/턱시도우/메이크업/사진 - 성별

1-2. 예식관련-(신혼여행)의 비용은?

- 예식과 관련된 혼수 준비에서 신혼여행은 ‘공동(80.0%)’으로 장만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공동’으로 장만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미혼 집단에서 ‘공동’으로 장만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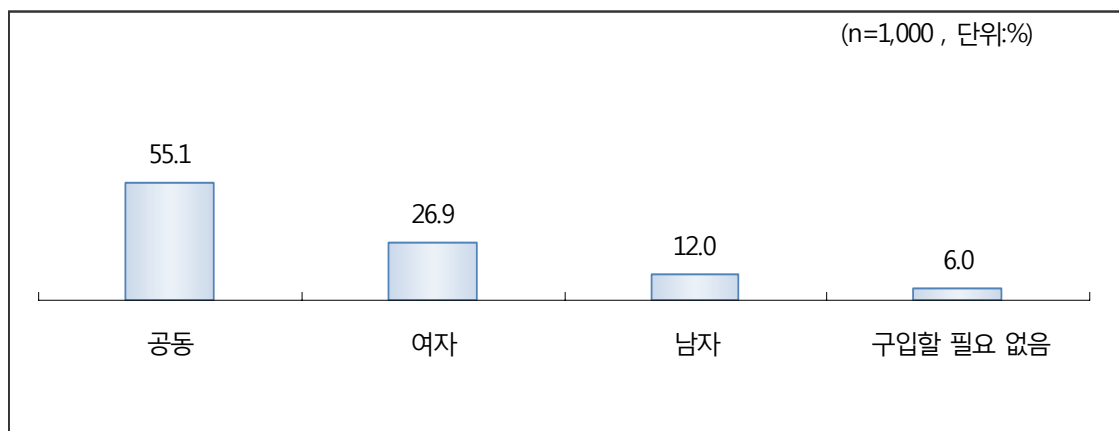
〈그림 1-2a〉 신혼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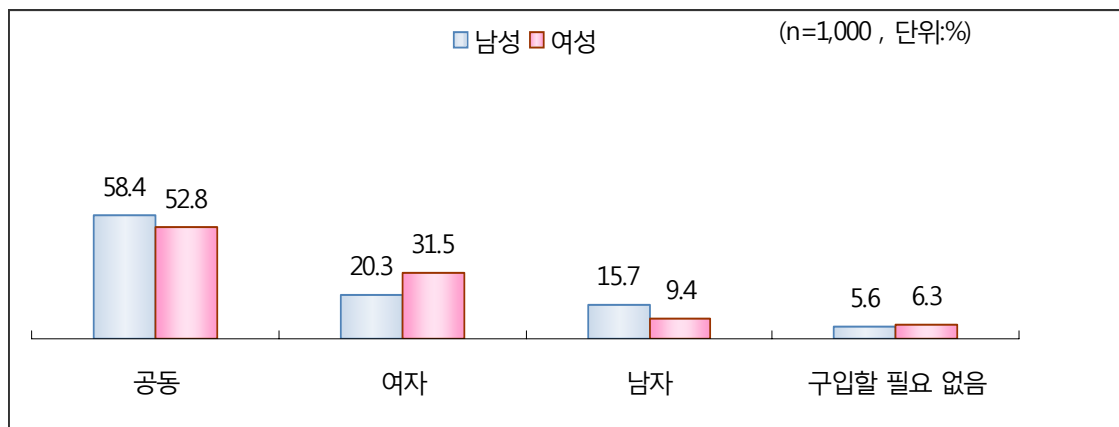
〈그림 1-2b〉 신혼여행 - 성별

1-3. 예식관련-(폐백) 비용은?

- 예식과 관련된 혼수 준비에서 폐백은 ‘공동(55.1%)’으로 장만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여자(26.9%)’, ‘남자(12.0%)’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별로 남녀 모두 ‘공동’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여자’가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성 쪽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연령 별로는 기혼보다는 미혼에서 ‘공동’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으며 그 중 미혼 20-30대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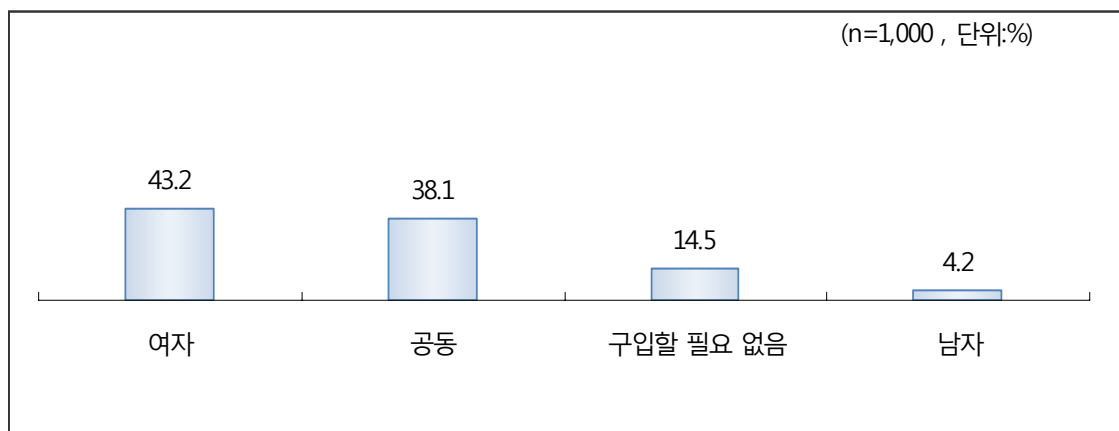
〈그림 1-3a〉 폐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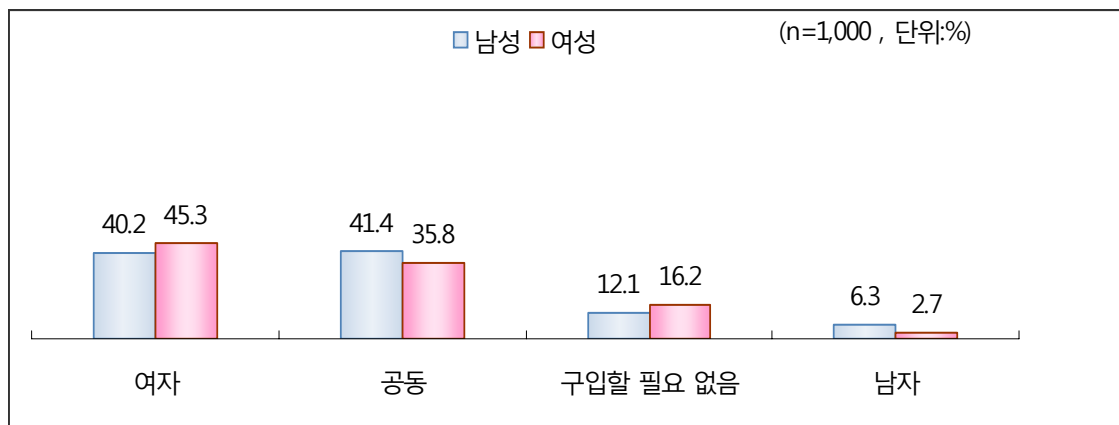
〈그림 1-3b〉 폐백 - 성별

1-4. 예식관련-(이바지) 준비는?

- 예식과 관련된 혼수 준비에서 이바지는 ‘여자(43.2%)’ 쪽에서 장만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동(38.1%)’, ‘구입할 필요 없음(14.5%)’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자’가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성 쪽에서, ‘공동’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은 남성 쪽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연령 별로는 기혼 20-30대, 기혼 40대에서는 여자’가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미혼 20대에서는 ‘공동’으로 준비해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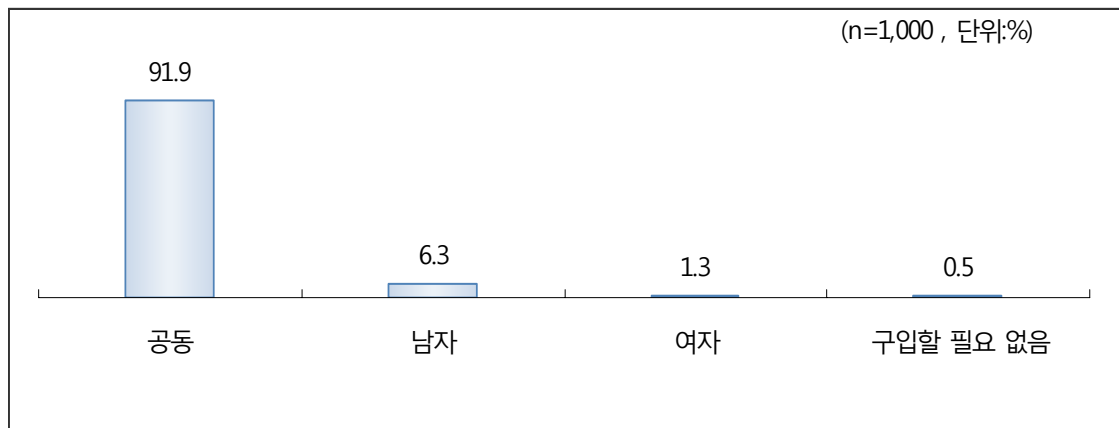
〈그림 1-4a〉 이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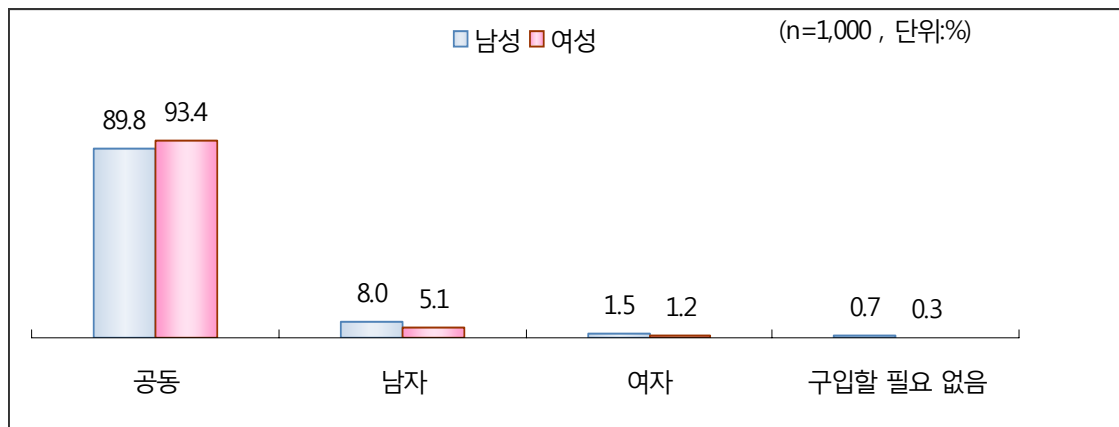
〈그림 1-4b〉 이바지 - 성별

1-5. 예식관련-(청첩장) 준비는?

- 예식과 관련된 청첩장 준비는 ‘공동(91.9%)’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남자(6.3%)’, ‘구입할 필요 없음(0.5%)’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유형별로도, ‘공동’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여성 쪽에서, 공동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93.4% 남성 쪽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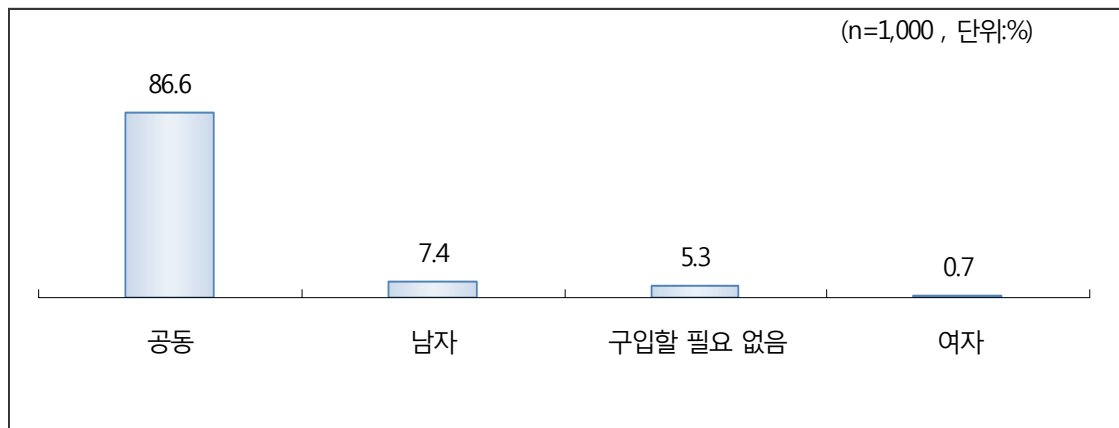
〈그림 1-5a〉 청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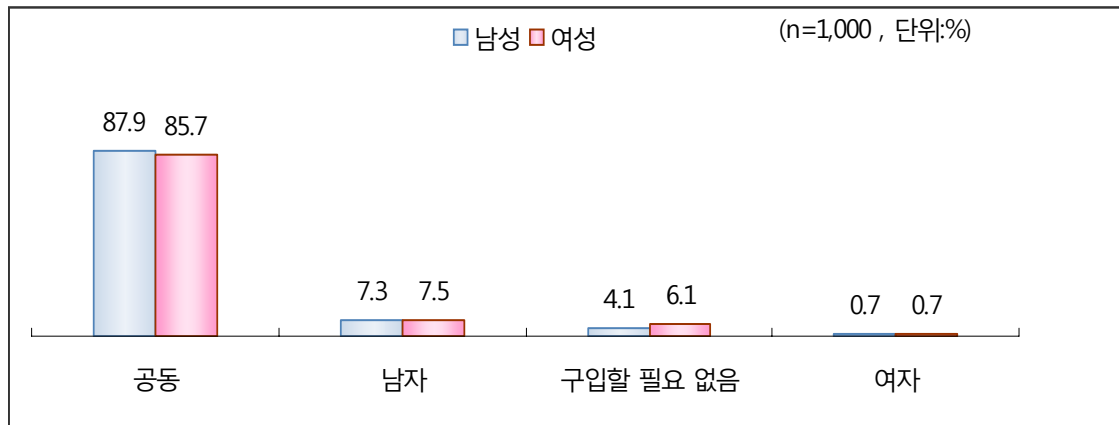
〈그림 1-5b〉 청첩장 - 성별

1-6. 예식관련-(피로연) 준비는?

- 예식 중에서 피로연 대해 전체 응답자의 86.6%가 ‘공동’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공동으로 준비해야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공동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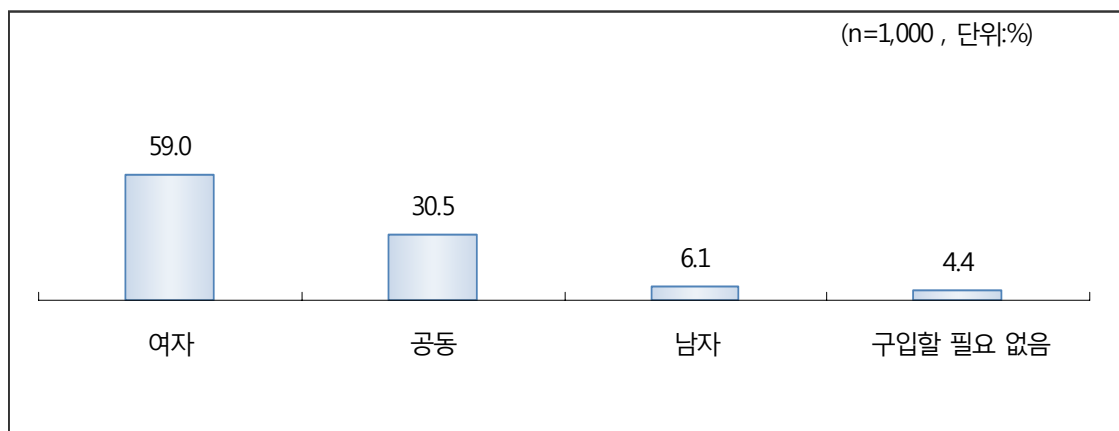
〈그림 1-6a〉 피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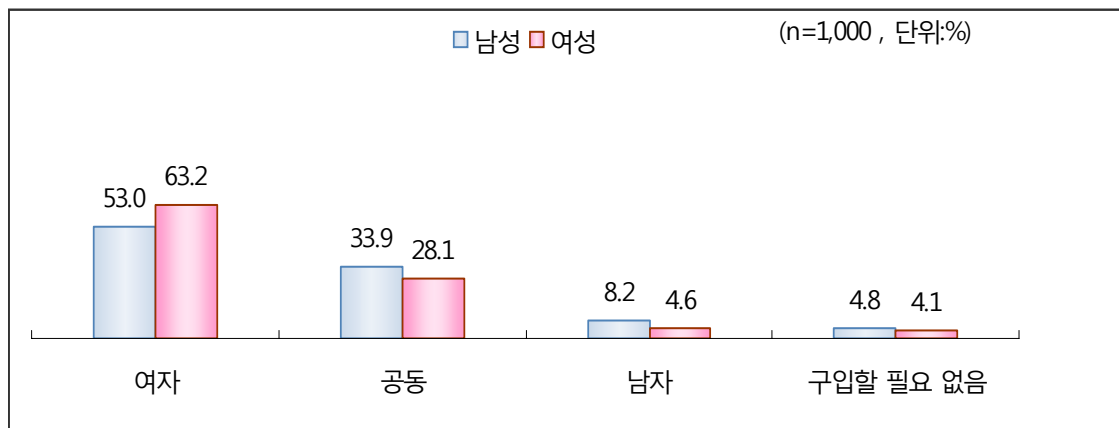
〈그림 1-6b〉 피로연 - 성별

1-7. 예물 관련-(신랑 폐물, 신랑 예복) 준비는?

- 혼수 중 신랑 폐물/예복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9.0%가 ‘여자’가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동 30.5%, 남자 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여자가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응답한 가운데 남자 보다는 여자가 신랑 폐물과 예복을 준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기혼자인 20,30대의 응답자가 여자가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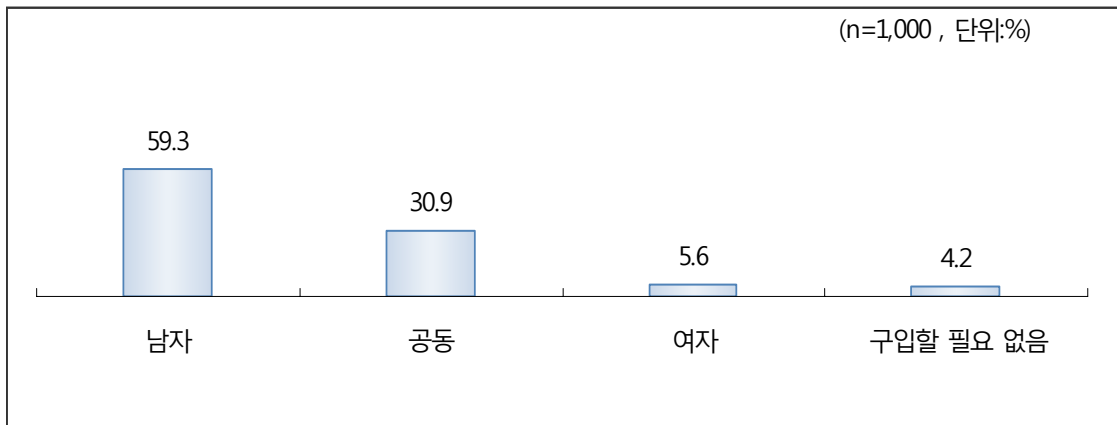
〈그림 1-7a〉 신랑 폐물, 신랑 예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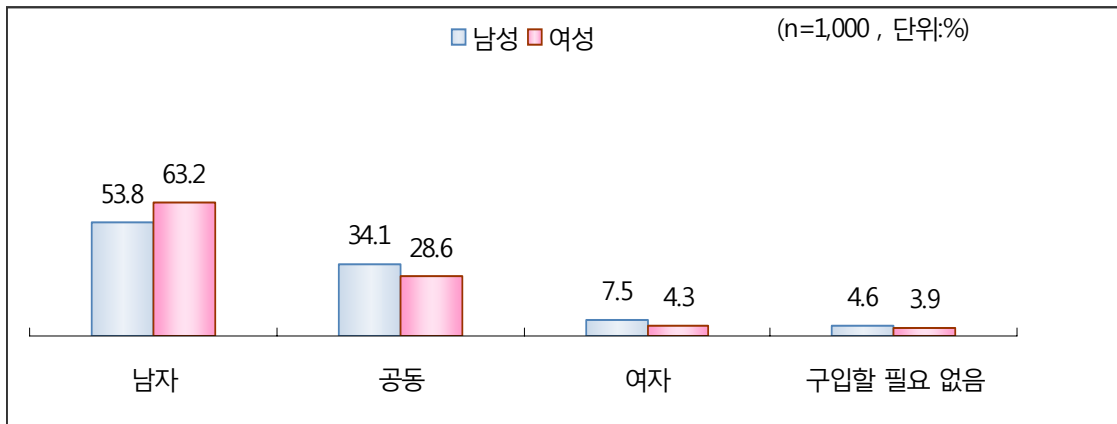
〈그림 1-7b〉 신랑 폐물, 신랑 예복 - 성별

1-8. 예물 관련-(신부 폐물, 신부 예복) 준비는?

- 신부 폐물/예복의 경우에는 남자가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59.3%로 공동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 보다 높았음.
-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남자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공동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았음.
- 기혼 미혼에 상관없이 연령이 낮을수록 남자가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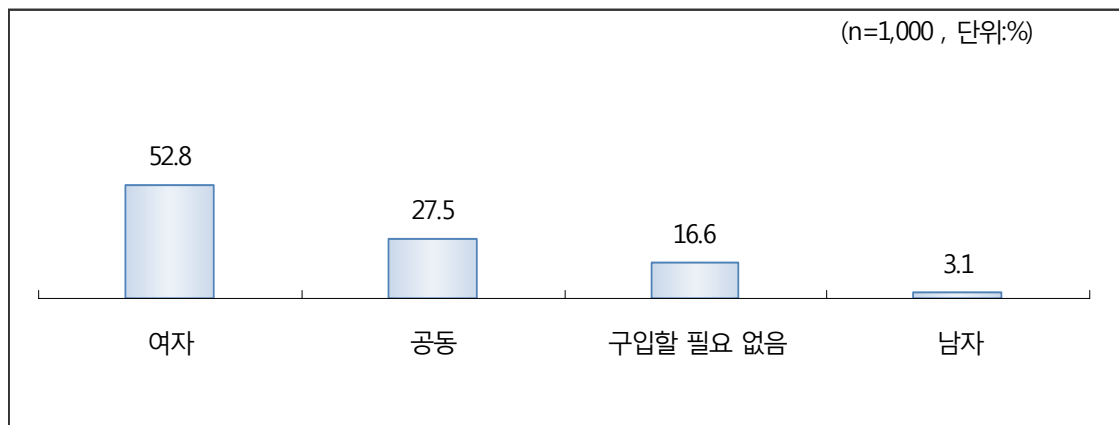
〈그림 1-8a〉 신부 폐물, 신부 예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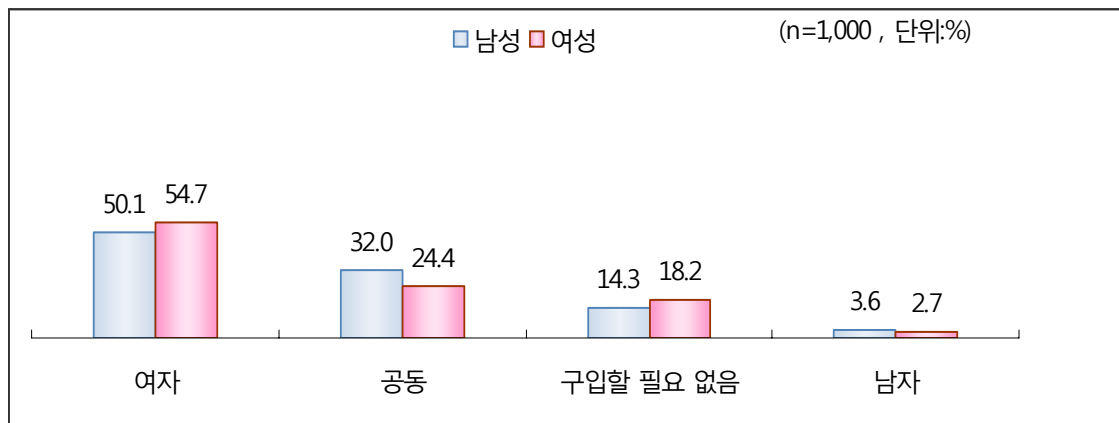
〈그림 1-8b〉 신부 폐물, 신부 예복 - 성별

1-9. 예단 관련-(신랑 부모 예단, 신랑 친척 예단) 준비는?

- 예단 중에서 신랑 부모 예단 및 신랑 친척 예단에 전체 응답자의 52.8%가 여자가 준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공동이 27.5%로 나타남.
-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여자가 준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남자는 공동으로, 여자는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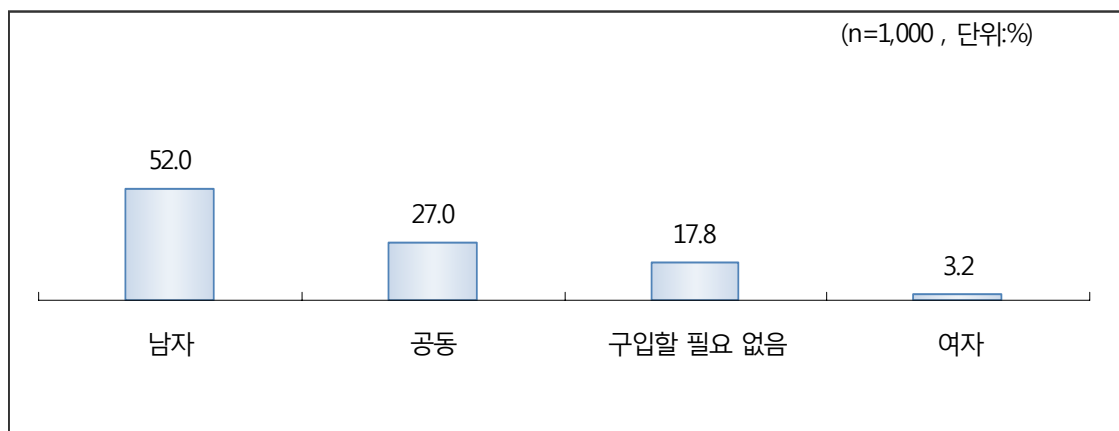
〈그림 1-9a〉 신랑 부모 예단, 신랑 친척 예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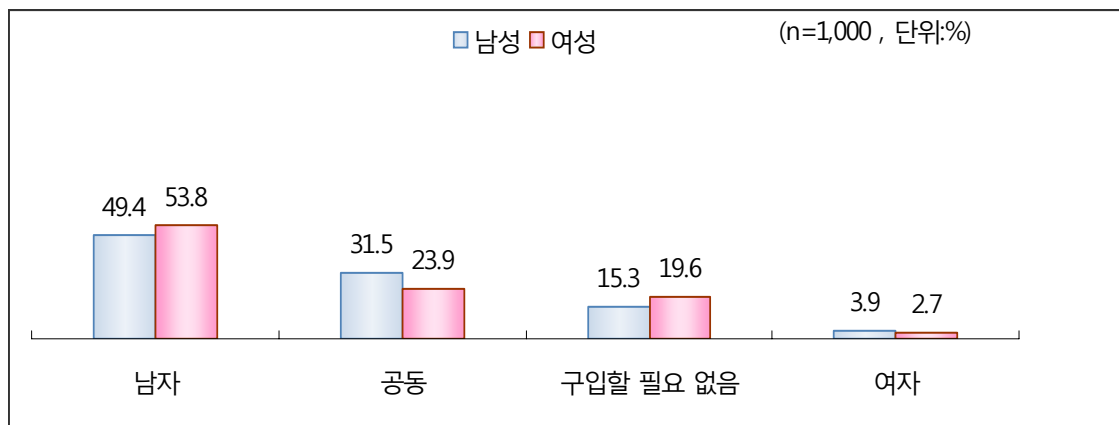
〈그림 1-9b〉 신랑 부모 예단, 신랑 친척 예단 등 - 성별

1-10. 예단 관련-(신부 부모 예단, 신부 친척 예단) 준비는?

- 혼수 중에서 신부 부모 예단과 신부 친척 예단을 남자가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52.0%로 가장 높았고, 공동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도 27.0%로 나타남.
-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남자가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여자 응답자가 남자가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응답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20대에서 공동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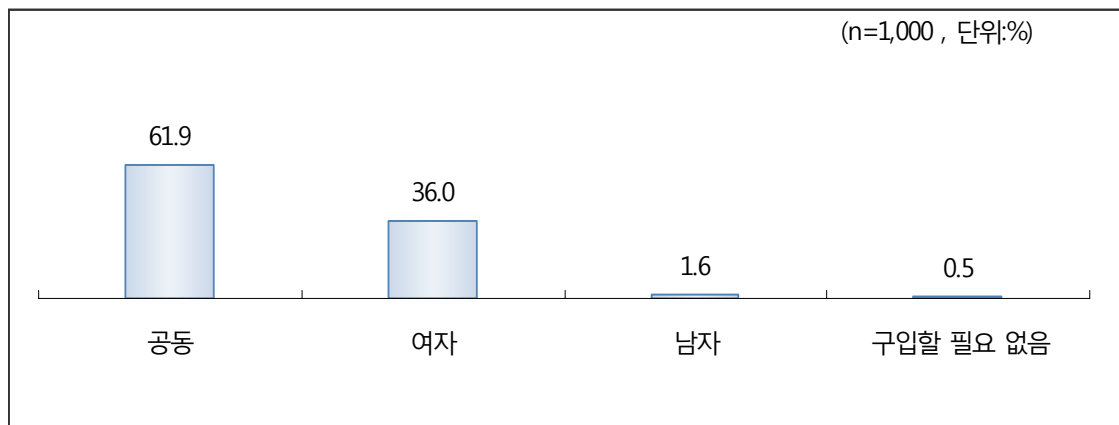
〈그림 1-10a〉 신부 부모 예단, 신부 친척 예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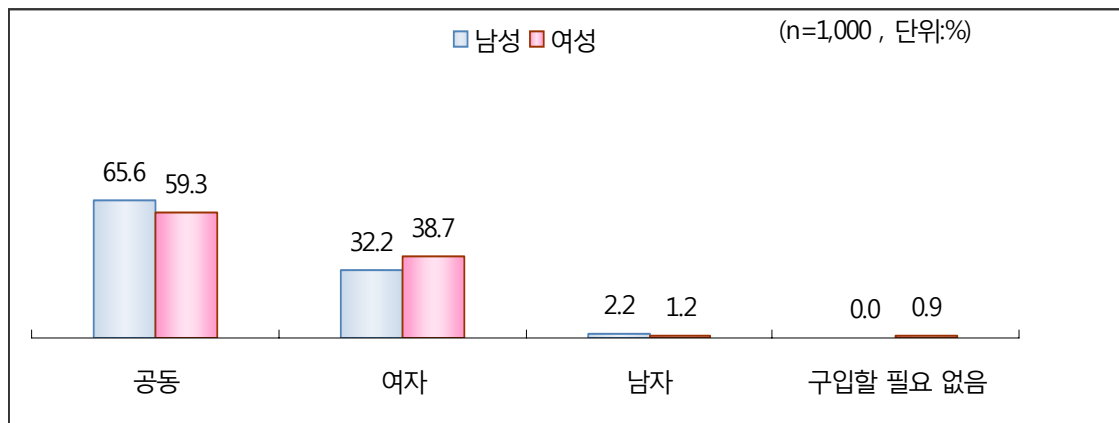
〈그림 1-10b〉 신부 부모 예단, 신부 친척 예단 등 - 성별

1-11. 생활용품-(가전제품 · 가구) 준비는?

- 혼수 준비 중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생활용품의 경우, 공동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61.9%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여자 36.0%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공동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여자 응답자의 경우에는 남자 보다 여자가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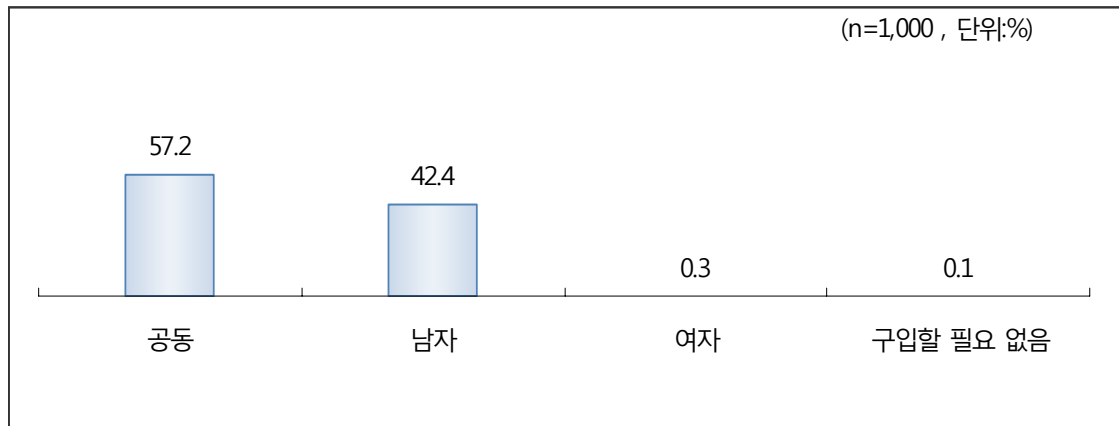
〈그림 1-11a〉 가전제품 · 가구 등의 생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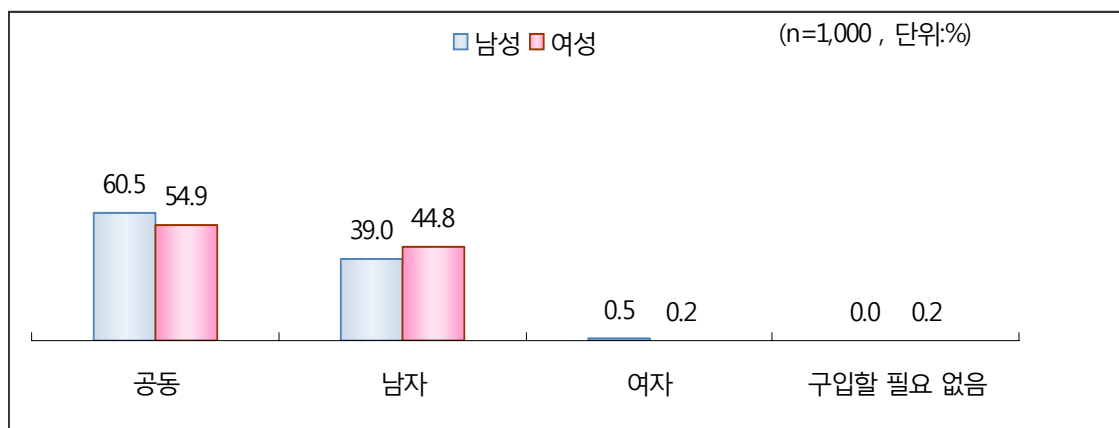
〈그림 1-11b〉 가전제품 · 가구 등의 생활용품 - 성별

1-12. 집 장만(월세 · 전세보증금, 구입) 준비는?

- 혼수 중 집장만의 경우, 공동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57.2%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남자가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42.4%로 나타남.
-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공동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은 가운데, 남자 응답자 보다는 여자 응답자에서 남자가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남.
- 기혼 20/30/40대와 미혼 20/30대의 응답이 연령층이 높은 집단보다 남자가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남.



〈그림 1-12a〉 집 장만(월세 · 전세보증금, 구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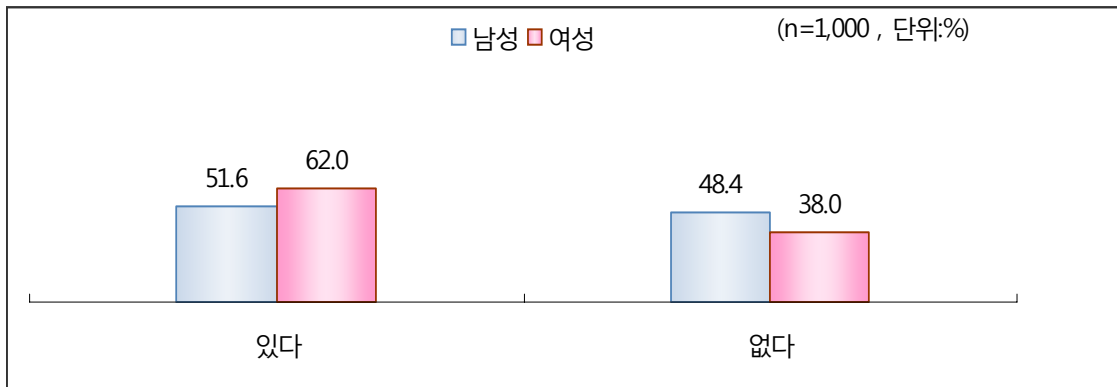
〈그림 1-12b〉 집 장만(월세 · 전세보증금, 구입 등) - 성별

2-1. 가족/친인척/지인 혼수로 인한 갈등 목적 · 경험 여부는?

- 가족/친인척 및 지인 가운데 혼수로 인해 갈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7%로 갈등이 없다는 의견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자 보다는 여자 쪽에서 갈등이 있다는 응답이 62.0%로 남자 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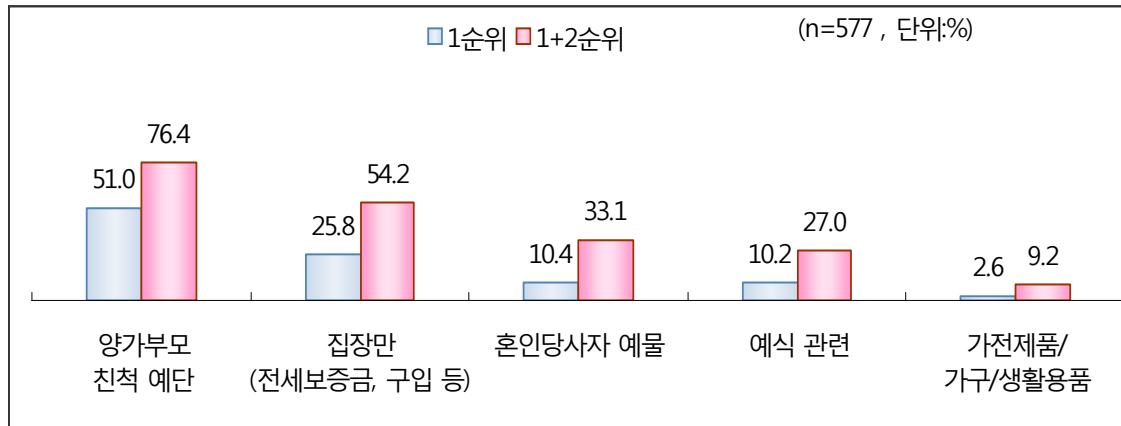
〈그림 2-1a〉 가족/친인척/지인 혼수로 인한 갈등 목적 ·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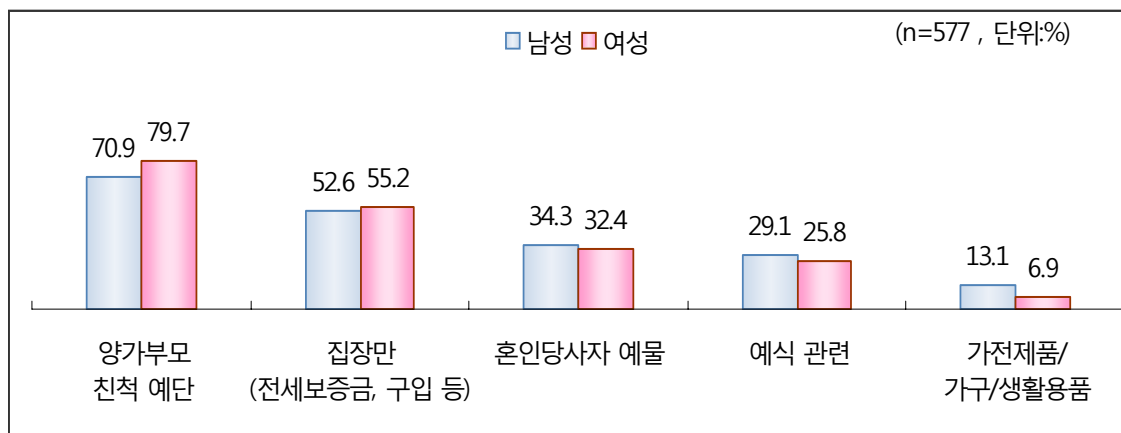
〈그림 2-1b〉 가족/친인척/지인 혼수로 인한 갈등 목적 · 경험 여부 - 성별

2-2. 갈등을 일으키는 혼수는?

- 갈등을 일으키는 혼수로는 남녀 모두 양가부모 친척 예단을 꼽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집장만, 혼인당사자 예물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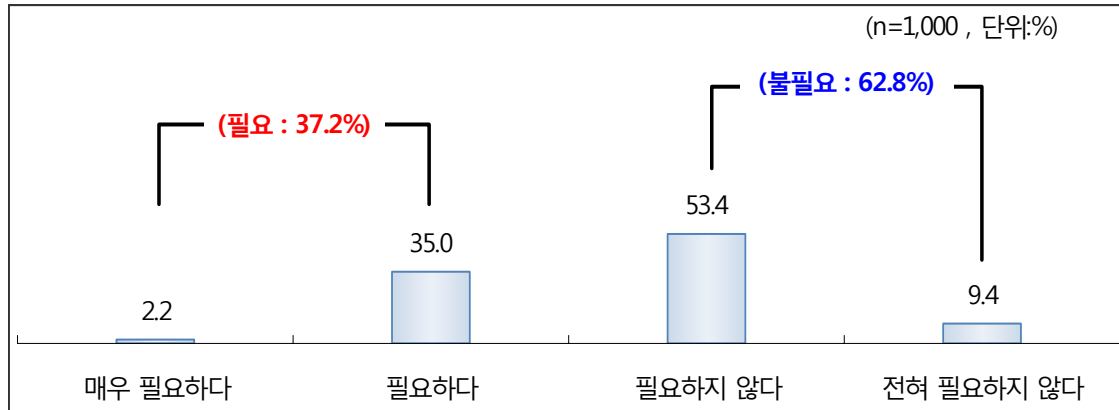
〈그림 2-2a〉 갈등을 일으키는 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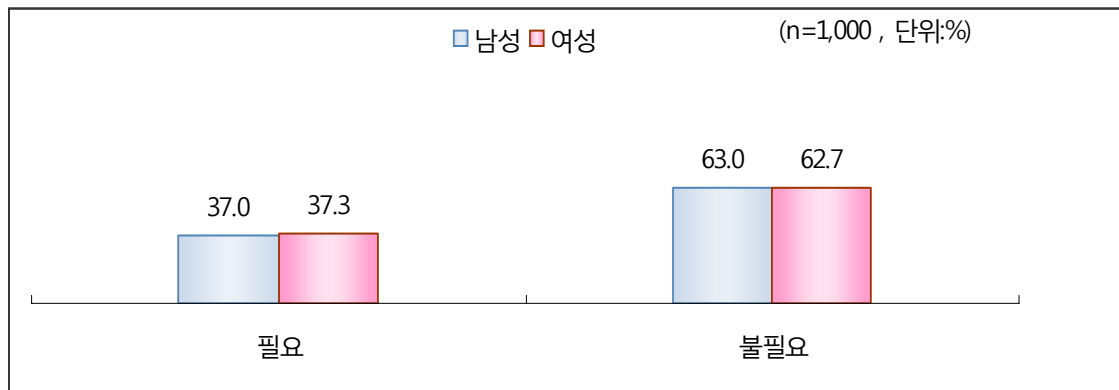
〈그림 2-2b〉 갈등을 일으키는 혼수(복수응답) - 성별

3-1. 혼수는 필요한가?

- 혼인당사자의 예물/양가부모 및 일가친척의 예단 등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7.2%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62.8%는 필요 없다고 응답함.
-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필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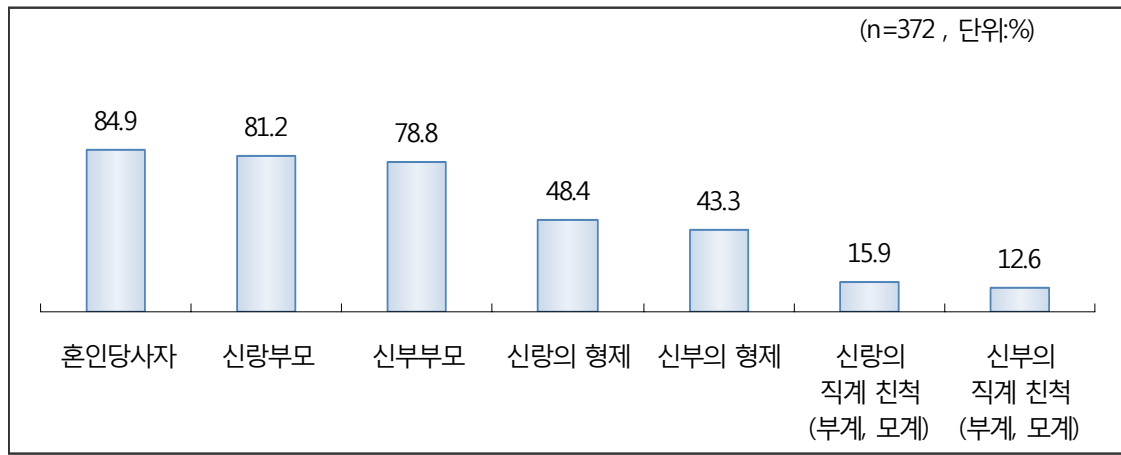
〈그림 3-1a〉 혼수 필요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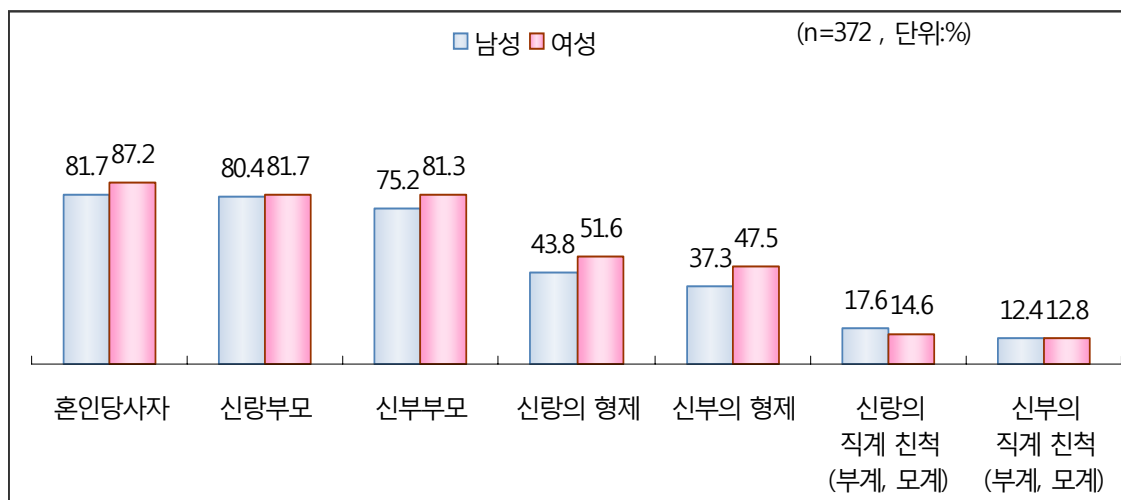
〈그림 3-1b〉 혼수 필요성 인식 - 성별

3-2. 혼수를 받는 범위는?

- 혼수를 받는 범위에 대한 질문 결과, 혼인당사자만 포함 된다는 응답이 84.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랑부모, 신부부모, 신랑의 형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비슷한 유형을 보이는 가운데, 여자 응답자에서 신부부모와 신부의 형제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당사자만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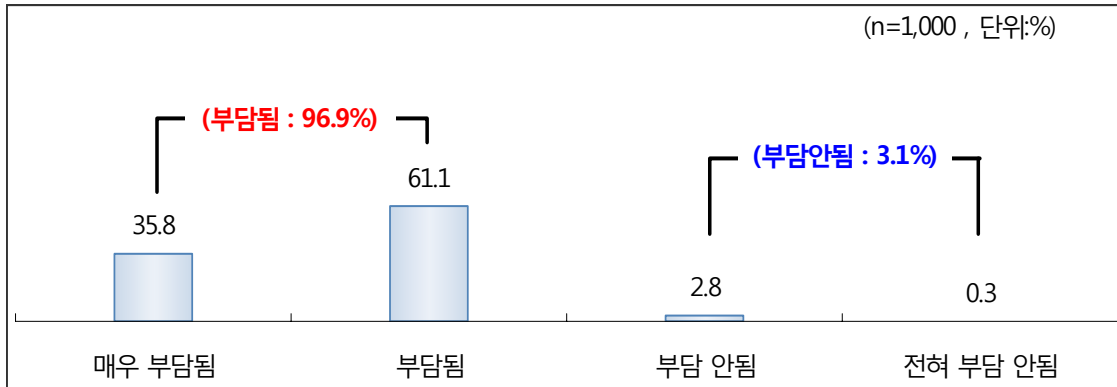
〈그림 3-2a〉 혼수를 받는 범위(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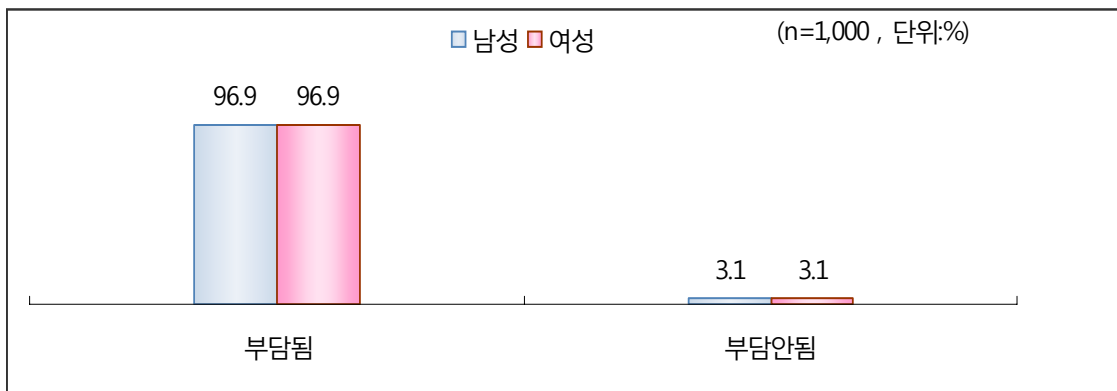
〈그림 3-2b〉 혼수를 받는 범위(복수응답) - 성별

4-1. 본인/가족/친인척/지인 혼수 부담 정도는?

- 본인/가족/친인척 및 지인 등에 대한 혼수 부담 정도를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96.9%로 나타남.
-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전체와 유사한 결과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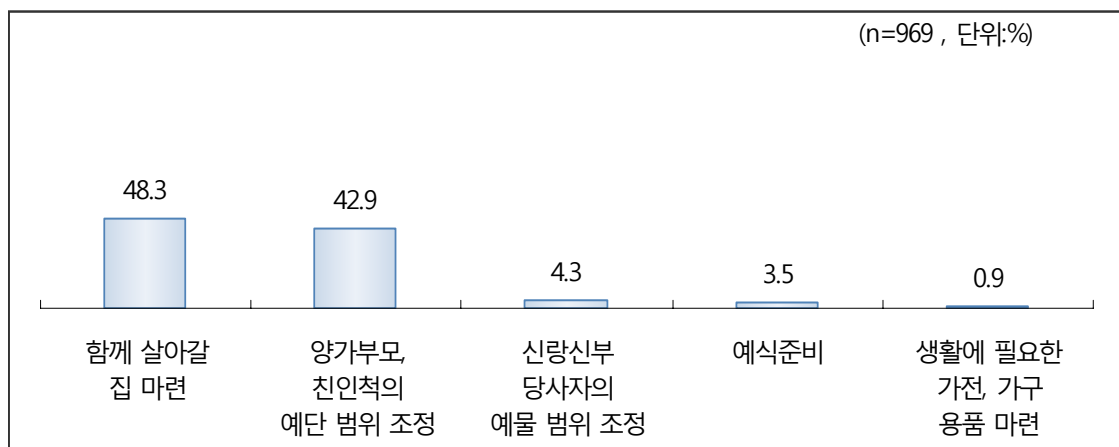
〈그림 4-1a〉 본인/가족/친인척/지인 혼수 부담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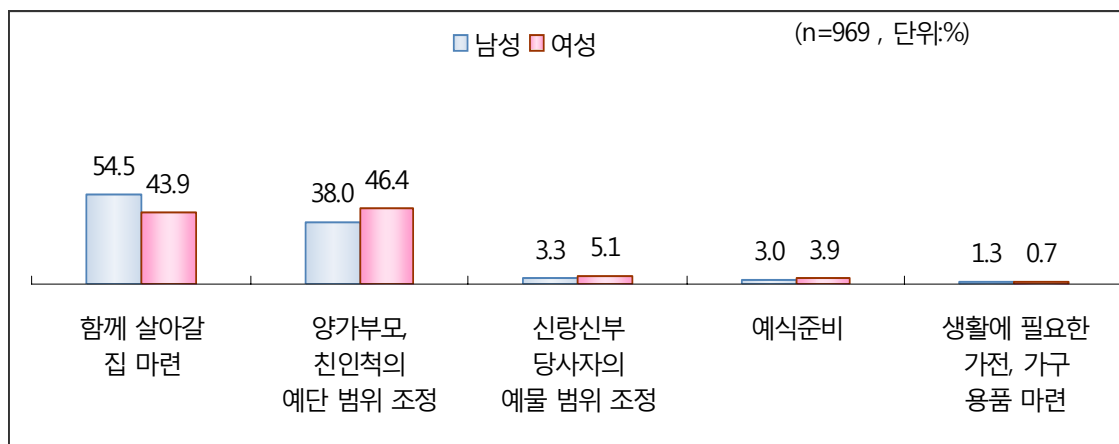
〈그림 4-1b〉 본인/가족/친인척/지인 혼수 부담 인식 - 성별

4-2. 혼수 준비과정에서 가장 부담되고 것은?

- 혼수 준비과정에서 가장 부담되는 일에 대한 평가 결과, 집 장만이라는 응답이 48.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양가부모/친인척의 예단 범위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집 장만이라고 응답한 가운데, 여자 응답자의 경우에는 양가부모/친인척의 예단 범위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30/40대에서 집 장만에 대한 부담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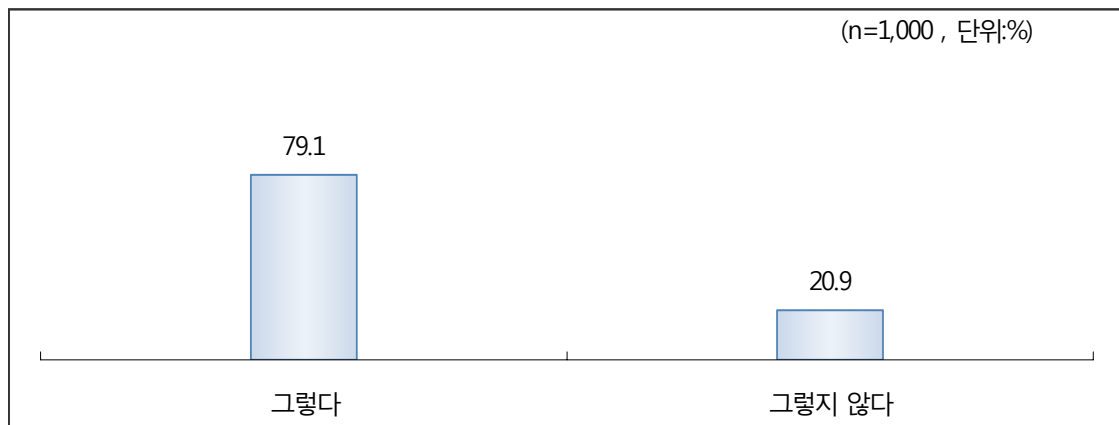
〈그림 4-2a〉 혼수 준비과정에서 가장 부담되고 힘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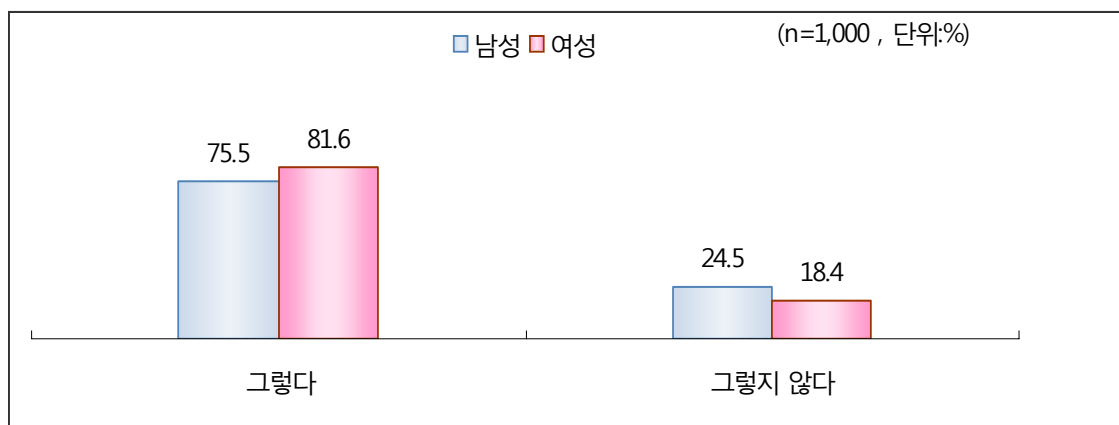
〈그림 4-2b〉 혼수 준비과정에서 가장 부담되고 힘든 일 - 성별

5. 혼수 부담이 결혼기피에 영향을 주는가?

- 혼수 부담으로 젊은층의 결혼기피 영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79.1%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0.9%로 나타남.
-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혼수가 결혼기피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가운데, 남자 응답자 보다는 여자 응답자의 결혼기피에 대한 영향 정도가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혼수에 따른 결혼기피가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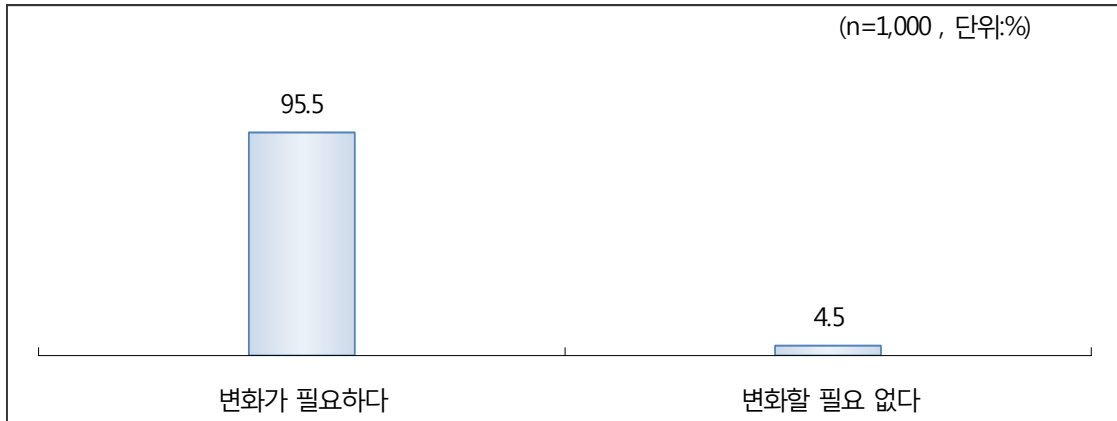
〈그림 5a〉 혼수의 부담이 젊은층 결혼기피 영향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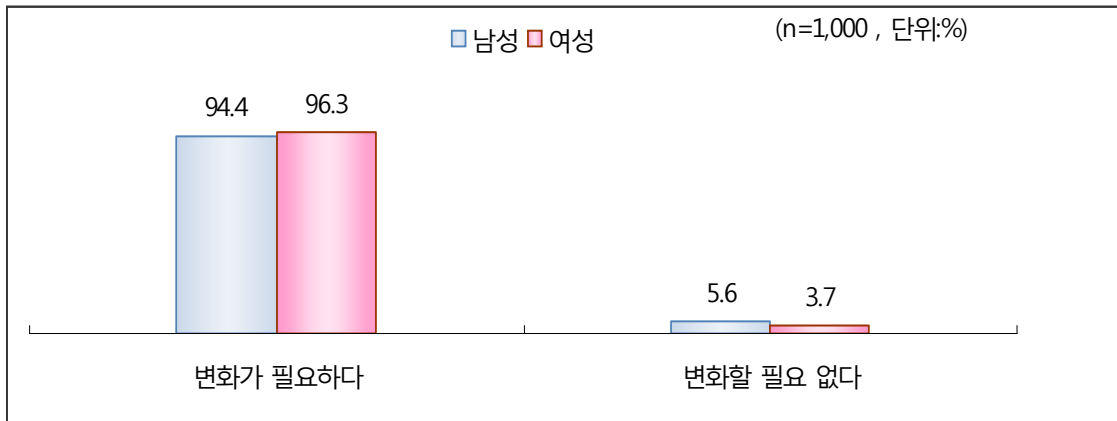
〈그림 5b〉 혼수의 부담이 젊은층 결혼기피 영향 인식-성별

6-1. 일반적 혼인 예식 변화가 필요한가?

- 우리 사회의 혼인 예식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5.5%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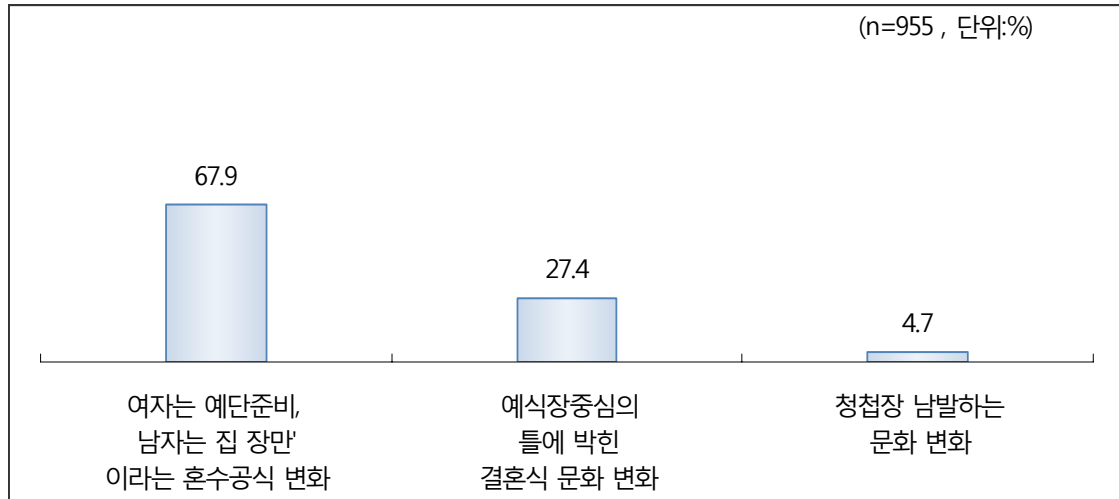
〈그림 6-1a〉 사회의 일반적 혼인 예식 변화 필요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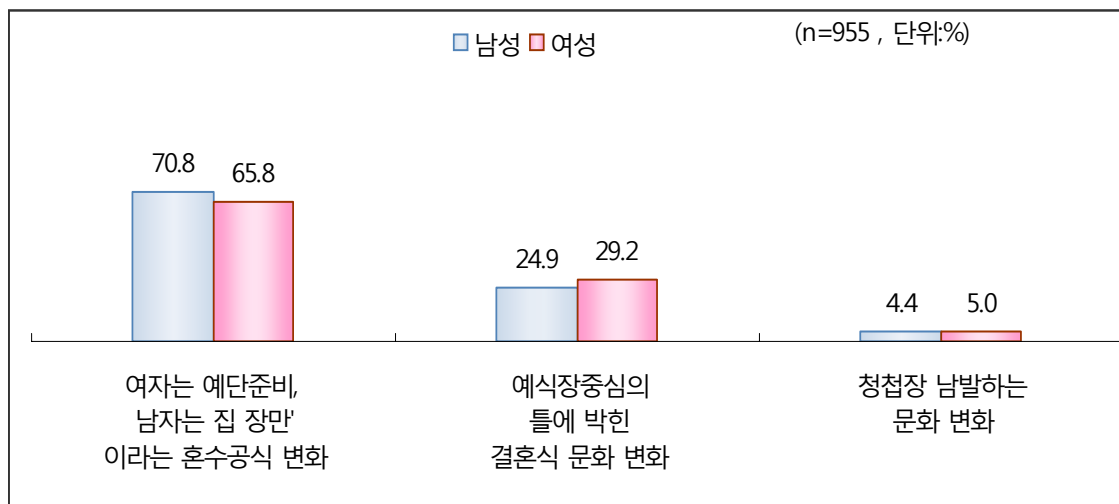
〈그림 6-1b〉 사회의 일반적 혼인 예식 변화 필요성 인식-성별

6-2. 일반적 혼인 예식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 일반적인 혼인 예식에 대한 변화 방향에 대해서는 ‘여자 예단준비/남자 집 장만’이라는 혼수 공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7.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식장 중심의 결혼 문화’ 27.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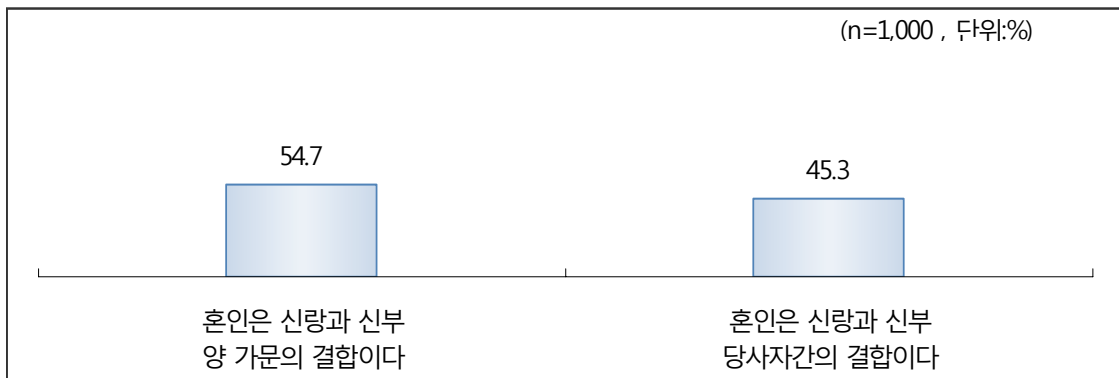
〈그림 6-2a〉 일반적 혼인 예식의 변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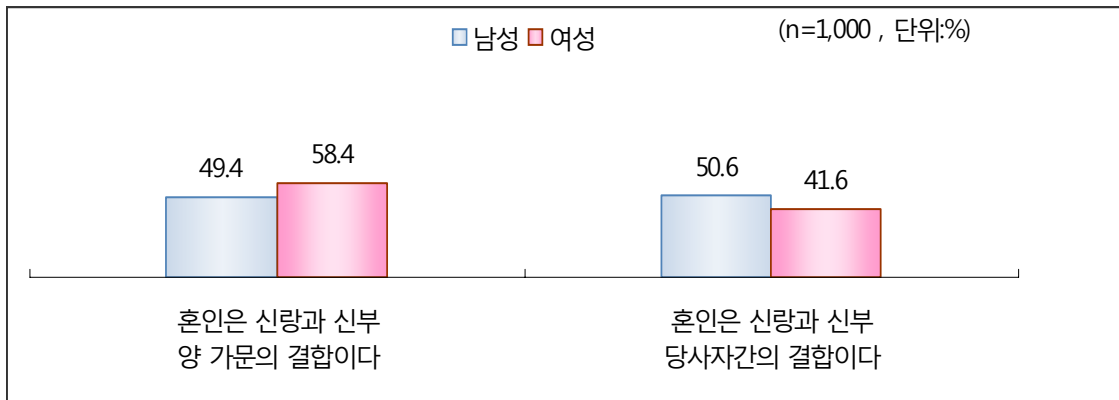
〈그림 6-2b〉 일반적 혼인 예식의 변화 방향 - 성별

7. 혼인의 의미는?

- 혼인의 의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4.7%는 ‘신랑과 신부 양 가문의 결합이다’라는 응답한 반면, 45.3%는 ‘신랑과 신부 당사자간의 결합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랑과 신부 양 가문의 결합이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남자보다는 여자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보다는 기혼 집단에서 ‘신랑과 신부 양 가문의 결합이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남.



〈그림 7a〉 혼인의 의미에 대한 인식-성별



〈그림 7b〉 혼인의 의미에 대한 인식-성별